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1 1982년 12월 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December 9, 1982

DEC 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사진대회 특선작 "미녀의 미소"

촬영 : 미셸·리노버쉬
모델 : 박 은 희

「칼라」-사진의 구도, 모델의 표정, 칼라 처리등은 만점이나 왼쪽에 보이는 드럼통이 흠이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이다.

신춘문예 15일마감

올해로 제6회에 접어든 캐나다한국문인협회(Korean Canadian PEN Club, 회장 조정대)현상모집「신춘문예」가 오는 15일로 마감한다.

캐나다전역의 작가 지망자와 역량이 있는 이들의 다수 응모를 기대하고 있다.

시(시조 포함)·소설(200자지 30~60매)·수필(200자지 10매내외)·평론(200자지 40매이내)·희곡(200자지 60~120매)·동화(200자지 30매이내)·동시(동요·동화시 포함)등 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모집하고 있다.

발표는 83년1월1일, 각부문당선작 1편, 가작 1편에 시상한다.

원고접수처: 캐나다한국문인협회(Korean Canadian Pen Club)
6 Massey Square #2006 Tor. Ont. M4C 5L6
연락처: 533-2361(Mr. Lee)
•원고에는 꼭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을 것

저항받는 한국재벌

한국 언론들 "반성 촉구"

30개 재벌이 GNP 60% 차지

지난 29일자 도꾜의「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로 아래와 같이 한국경제, 특히 재벌문제를 심층보도, 논평했다.

"GNP(국민총생산)의 60%이상(매상)을 몇몇 재벌에 독점시켜서 되는가?"(한국일보), "재정중심의 금융정책을 중지하라"(조선일보)-「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짊어졌던 재벌에 대한 찬 서리가 은행 민영화를 에워싸고 더 심해졌다.

한국정부가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은행의 주식을, 은행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재벌그룹이 다투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 진 부채를 갚는 것이 기업의 윤리가 아닌가"(한국일보)하는 반발을 사고 있다.

관측들은 그 바탕에는 재벌의 정부와의 밀착, 많은 특혜를 힘입어 계속 성장해온 재벌에 대한 서민의 반감, 고도성장 정책의 위축, 불평등사회에 대한 반성등이 스며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향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의 재벌은 지금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재벌비판은 먼저 지금 개회중인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정순덕의원은 "은행에 고액부채가 있는 대기업이 정부 소유주식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 이래서는 시중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물이됐다.

제1야당인 민한당의 지정도 의원은 "국민대중을 외면한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이 GNP의 60%이상을 몇개 기업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원리가 존속될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이다. 재벌에 경제력을 집중시키는식의 정책은 모든 국민은 몇몇 재벌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한국재무부 발표를 보면, 국내 30개 재벌에 의한 81년의 매상고는 25조8천700여억원으로, 81년도 국민총생산의 60%에 달한다.

GNP의 1%이상의 매상은 기록하고 있는 그룹이 15개에 달하며, 그 중 현재는 무려 8.2%나 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소유 주식을 매각한 제일은행의 경우, 대우그룹이 16.7%, 현대및 럭키그룹이 각각 10%등 재벌이 전체 주식의 47.5%를 사들였다.

서울신탁은행의 케이스에서도 현대아주, 신동아등이 30%의 주식을 점유했다.

작년 민영화된 한일은행 [illegible] 41%를 취득, 완전한 재벌 지배 태세를 굳히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벌그룹은 또한 국내 19개 보험회사중 13개를, 27개 증권회사중 19개를, 또한 10개 지방은행중 8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산업자본으로 부터 금융자본에로의 이동이 자본주의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 재벌이 각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하고, 그것을 갚지 않은채 은행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점이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현대, 삼성등 대재벌계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18%, 자기 자본 1만원에 대해 부채 4만5천원의 계산이 되며, 더구나 대기업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 이것은 은행 금리가 시장 실제 금리보다 낮아 특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총대부의 30%를「중소기업 육성」으로 돌리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껏 30%에 미달상태이다. 중소·영세기업이 고금리의 사체시장에서 자금회전에 고역을 겪고 있을때 이자가 싼 돈을 대량으로 빌리고 있는 재벌이 그 빚을 갚지도 않은채 은행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사실에 서민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28일 실시된 대폭적인 대출금리 인하로「대기업 대책」이라는 불만도 산 것이 사실이다.

민한당의 이형배의원은 "6·28조처(대출금리의 4%인하)로 재벌기업들은 앉은채 1억원으로 추측되는 이자부담 경감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 "이 돈은 서민의 입장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면으로 계속〉

김정일 실각?

관직 박탈당한 후 말타에서 강제휴가

(도꾜8일=연합)지중해의「말타」섬에서 현재 휴가를 즐기고 있는 김일성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에 의해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후 해외여행을 장요당했다고 〈통일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곳 교포가 일본어로 발행하는 〈통일일보〉는 방금 평양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소식통을 인용, "김일성은 김정일의 건강회복이라는 구실하에 아들을 해외로 추방시켰는데, 실제이유는 정일파의 오만을 더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문제 전문지인 〈통일일보〉는 또한 김정일파가 경험이 풍부한 노년관리들을 해고시키고 "3개혁명팀"의 멤버들을 그대신 기용했다고 밝혔다.

일간지인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한의 행정부및 공산당의 연례연석회의가 11월25일 속개된 직후 돌연히 말타로 떠났다.

이 연석회의는 11월15일 개회되었으나 김정일의 "무모한 정책"에 대한 중도온건파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도중 중단되었다.

고급공무원 재산등록 내년 1월1일부터 실시

(서울7일=연합)박찬긍 총무처장관은 6일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윤리법에 따라 모든 고급공무원들은 사유재산을 등록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내무위에 출석,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해 답변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은행예금, 유가증권, 수표등은 물론 일년수입이 1천2백만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말했다.

등록의 의무를 지닌 공무원은 검찰, 행정부 고위공무원및 군장성급을 포함, 약 600명이며 그들자신의 소유는 물론 가족의 소유라도 등록해야 한다.

이 공무원윤리법은 전두환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에 제정되었다.

불루어거리뒤 팔머스톤도서관

한국인의 이용바라

불루어 한인상가 밀집지역의 한복판인 팔머스톤과 불루어에 위치한 메트로·토론토 도서관 팔머스톤지부(City of Toronto Palmerston Library)가 한국인들의 더 많은 도서관 이용을 원하고 있다.

팔머스톤도서관은 6일 본지에 보낸 보도의뢰 서한에서 동 도서관은 현재 1,100권 이상의 전가족이 즐길수 있는 한국어서적을 갖고 있으며, 토론토?유일의 일간지인 한국일보를 비치해두었음을 강조했다.

최근 카셋·테이프부를 신설한 이 도서관은 특히 읽고싶은 한국책이나 듣고싶은 한국음악에 대해 알려주면 방법을 모색 즉각 비치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팔머스톤 도서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12월16일(목) 하오3시부터 8시까지 파티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한국사람들의 파티참석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전가족이 즐길수 있는 성탄영화, 싱거들의 캐롤연주등이 있을 예정이며 음료및 다과가 제공된다. 입장료는 무료.

도서관의 문의전화는 484-8015, 주소는 560 Palmerston Ave.이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반음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 고국에 부모·형제·친지께 선물을 보내실려면 미도파에서 상의하세요.
■ 「밍크」쇼는 성황이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현대자동차 "포니" 첫 선

토론토 자동차 전시회에

오는 2월11일부터 10일간 열릴 제10차 자동차 전시회(Auto Show)에 한국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선을 보인다.

토론토공항 부근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있을 자동차 전시회는 세계 각지의 32개 자동차회사의 제품500종과, 클래식카들이 전시되며, 34개 회사의 신제품이 선보여진다고.

북미의 시장을 노리고 현대자동차가 심혈을 기울인 모델로, 현대는 금년부터 포니의 북미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장 전체에 카페트가 깔리고, 미녀들이 안내를 맡게될 오토·쇼의 입장료는, 어른 $5.00, 어린이 $1.50, 노인 $2.50, 주말가족 $8.00로 현장에서 구입계약도 가능하다.

개장시간은 주중 12:00~10:30

토요일 10:00~10:30 PM.

일요일 10:00~ 8:00

전시장 주소는 6900 Airport Rd. 이다.

◆포니 조립광경…2월11일 시작되는 토론토 오토·쇼에서 선 보일 현대자동차의 포니는 캐나다등 북미시장을 노리고 제작됐다.

시민권자 9만4천여 전년보다 2만 줄어

지난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수는 80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국무성의 시민권등록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에 총 9만4천457명이 시민권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80년도의 11만8천590명보다 2만4천133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새로운 캐나다 시민권자중 영국태생이 가장 많아 1만6천400명에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이태리(6천95명), 인도(5천518명), 필리핀(5천263명), 자마이카(4천934명), 미국(2천708명)순으로 집계되었다.

시민권을 가장 많이 받은 해는 1978년으로 22만3천214명에 달했다. 78년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유는 77년도에 캐나다 시민권법이 변경되어 시민권신청 대기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평균 캐나다 거주기간은 9년이었다.

유럽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캐나다의 시민권을 받을 것을 결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9년이상을 거주한 후에 시민권을 받은 19명중 15명이 유럽이며, 이태리의 평균 거주기간은 13년 반으로 나타났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투칼, 그리스및 호주에서 이민온 사람은 10년내지 11년 거주한 뒤 시민권을 받았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9년내지 10년을 거주한 뒤에 시민권을 획득했다.

평균 4년밖에 거주하지 않고 81년도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난민으로 이민온 자들이다.

또한 지난해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중 4만9천671명은 온타리오주에 거주한다.

대기업, 국민을 노예화

〈1면에서 계속〉

이같은 서민감정을 「한국일보」는 "(한국의) 재벌의 자본축적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이윤이라기보다 특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이 부의 사회환원보다 기업주의 영달, 무분별한 독점기업의 확충, 백화점식 기업확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 "재벌의 실태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에코노믹·애니멀(경제동물)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이미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 일본상사의 지점장은 "은행예약 4억원을 예금했는데, 담당자가 인사하러도 오지 않는다. 서비스는 나쁘고, 예금이 모여지지 않는 것도 당연" 하다고, 은행의 관료적 체질을 비판했다.

한국의 저축률은 약 20%로 서민의 돈은 태반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리가 높은 사채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재벌공박에 대해 재벌그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벌기업의 간부는 "한국의 수출입이 $500억 규모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이다. 남 베트남이나, 중동에의 진출도 기업의 이니시어티브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수교국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정부간의 수교를 유도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많은 노동시장을 제공하고, 고액의 세금을 바치고, 사회적 역할도 다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그같은(재벌측의) 반발자체가 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노조·소비자단체등 압력단체의 힘이 약하고, 정부지원, 족경영규모를 넘어 팽창했으며, 경영면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그만큼 거대화되면 사회적책임도 당연히 커져, 종래와 같은 「사람은 흥하고, 기업은 망한다」는 식의 경영방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8.15전부터의 민족자본형태의 재벌(삼양그룹)도 있으나 대부분은 해방후 일본인의 귀속재산 불하가 발단이 되었다.

저금리 특혜로 은행을 독점 대기업 자기자본율 18% 뿐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했다는데에 대한 자각부족"을 지적하면서, 한 지식인은 다음같은 얘기를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이병철회장이 올해 4월, 보스톤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행한 연설에서 "삼성그룹은 작년 한국의 GNP의 7.8%, 국가세금의 5.1%라는 사회적 책임을 짊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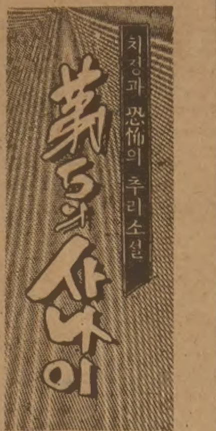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미국인 기자가 "이것은 이미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고 논평했다. 대형화는 경쟁원리를 상실시켜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부의 집중은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어느 경제인은 "한국재벌의 태반이 아직도 가족경영이지만 규모자체는 가

자유당시대에는 제분·제당·섬유제품으로 삼성이 재벌로서의 기초를 굳혔으나, 현재의 대재벌의 대부분은 70년대의 고도성장중에 육성되었다. 베트남 붐을 타고 한진그룹이 중공업화를 타고 현대그룹이 67년 섬유·봉제회사를 설립, 불과 10년여만에 종업원수 7만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발전한 대우그룹등을 들 수 있다.

재벌의 자본축적은 감세, 수출특별금융등 정부의 특혜에 힘입은바 크며, 불량기업을 사들여 대형화한 것이 특색이다.

대부분의 재벌은 가부장적 「세습체제」로 현대같은 주식비공개그룹도 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6>

출발 ⑦

창의 殺人행적 들추며 협박하는 女人…

그는 긴장해서 귀를 기울였다.

『아, 그러세요. 그러지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마치 전화가 걸려올줄 알고 있었다는듯 여자가 말했다.

『빨리 바꿔주시오.』

『제가 선생님을 상대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꼭 남자여야만 할필요는 없으니까요.』

여자가 간[illegible]한 소리로 말했다.

하긴 그렇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일을 부탁한 측의 정체를 알고싶습니다. 그것도 모른채 일을 맡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는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그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아까 선생님을 만났던 우리쪽 사람이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선생님께 혼이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사람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실줄 알았읍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읍니다. 선생님께서는 1971년5월18일파리에서 프렌치커넥션의 제2인자인 장·까베냐를 살해하셨지요? 피스톨로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받으신 15만달러는 사실은 우리측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는 수화기를 바꿔 들었다.

『우리라니? 분명히 말해봐요.』

『트라이앵글…。』

『나는 그 돈을 다른곳에서 받았는데…。』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모사드(이스라엘첩보기관)?』

여자는 작은소리로 조롱하듯 웃었다. 그는 은근히 화가났다.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까베냐이 반유태주의자이고 반유태운동을 위해 자금을대고있었다고 생각하셨겠지요? 물론 모사드의 말을 그대로 믿은거 겠지만…。』

『계속해봐요.』

『모사드는 까베냐를 처치하려고 별렀지만 그것이 여의치않자 선생님한테 암살청부를 맡겼지요. 15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까베냐를 암살하신거 아니예요?』

『난 시오니스트도 아니고 반유태주의자도 아니오.』

『아무려면 어때요. 선생님은 오로지 돈만을 신봉하시지 않나요? 그때 모사드와 관계를 가졌던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모사드는 그런 일을 선생님한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모든건 우리측의 연막이었어요. 선생님이 알고계시든 모르고계시든 아뭏든 선생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어오신거예요. 우리의 거래 장부에는 그때 분명히 선생님께 15만달러를 지불한걸로 기재되어있어요. 이제 아시겠지요?』

그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동안 선생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연히 바로 이 홍콩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되었지요.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몰랐다니…。아뭏든 반가와요. 어서 말해 줘요. 이제는 선생님을 놓치지 않을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부인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일이었다.

朴男 그림

경찰비위폭로에 $1,000벌금

위험무기 소지혐의로…프로버브 사건

경찰들의 비위를 몰래 촬영, 재판정에 제시했던 닐·프로버브씨가 당초의 혐의인 위험무기소지혐의로 $1,000의 벌금과 5년간 위험무기소지금지령을 받았다.

증권소개업자인 프로버브씨는 7일의 최종심에서 카운티코포 휴·로크판사로부터 가벼운 벌금형만 받았다. 이같은 혐의의 최고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로크판사는 판결에서 '나와 배심원들은 프로버브씨의 위험무기소지혐의만 다루었으며 '경찰의 비위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버브씨는 자택에서 80년 9월1일 사기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사기혐의와 위험무기소지혐의로 체포됐으나 사기는 이날 재판에서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체포당시 프로버브씨는 침입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방어로 갖고 있던 12연발 엽총을 장전하려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후 프로버브씨는 경찰관들을 한 레스토랑으로 9천만달러의 마약밀매 수사를 도와주겠다면서 유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비데오 촬영했다.

이 테입의 내용중에는 경찰관이 판·검사와 결탁하는 내용등 맥머트리검찰총장, 애크로이드 메트로경찰국장등의 이름도 언급됐으나, 담당경찰관 레이놀드경위와 빌리드경위는 프로버브씨로부터 9천만달러의 마약밀매정보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토론토각 언론이 집중보도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경찰에서 테입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관비위사실을 조사중이다.

7일의 최종심에서 프로버브씨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배심원들에게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지 않은것은 판사의 잘못이라면서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83년은 「특별성년」

교황, 획기적 선언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세계추기경회의에서 내년(83년)도를 "특별성년으로 정한다"고 선언했다.

「성년」의 역사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율법」에는 50년마다 성년을 제정, 성년( )에는 노예는 해방되고, 빚진 것은 면제되며, 야훼의 배성은 성지로 속죄의 여행길에 오르도록 정해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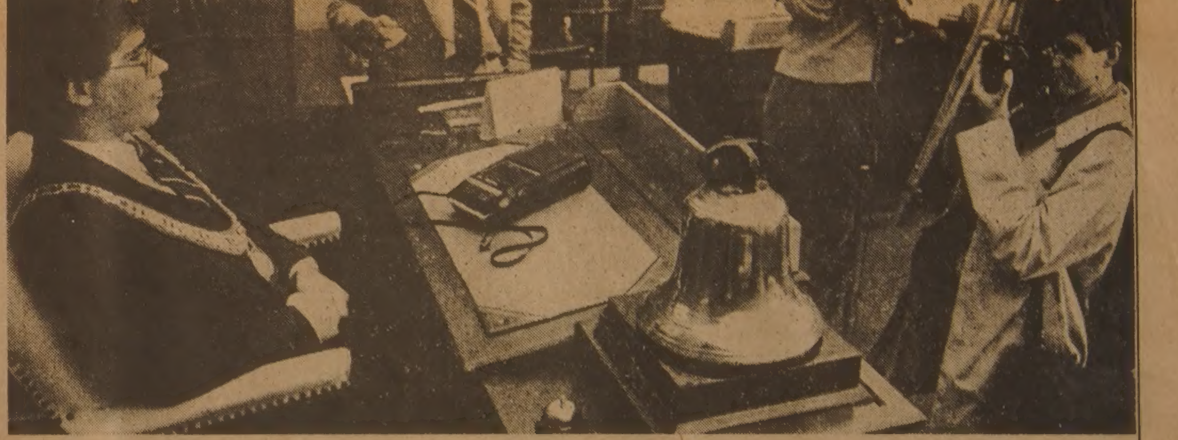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식행사로 된 것은 기원 1,300년이다. 50년, 또는 33년마다 「성년」으로 선포했고, 후에 다시 25년마다 「성년」으로 제정, 이해는 바티칸최대의 축제년이 되어 전세계 가톨릭신자들은 순례단을 짜서 모여든다.

지난번 성년인 1975년에는 800만명의 순례자가 로마로 모여들었다.

이상의 정기적 성년과는 별도로 「특별성년」이 있다.

이것은 큰 기쁨 혹은 큰 슬픔을 맞아 교황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성년 선포조처에는 교황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의도도 섞여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특별성년」은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추기경회의 석상에서 선언된 것이며, 이번 회의의 중요의제는 재정문제였다.



◆캐나다사상 최연소시장으로 당선된 22살의 스테판·클락씨가 9일 첫 집무를 시작했다. 대학은 졸업했으나 직장을 못찾던 크락씨는 년봉 15,000달러짜리 브록빌시장에 도전, 베테랑 전임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인구2만의 소도시 시장이 된 클락의 능력은 미지수이나 열 심히 일하겠다고 한다.

밍크자케트 $1499.00 밍크목도리 $125.00 여우털칼라 $125.00

진주 眞珠 목거리

특별할인봉사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피에르가르뎅 * 지반시 Y셔츠

빅세븐

귀국 선물 용품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서머나교회 이름변경

토론토 한인감리교회로

(구명 : 서머나감리교회)

교회주소 :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M2N 2N1

☎ : 498-7960(사택)

토론토한인감리교회

Toronto Korean Methodist Church

목사 : 박준하

장로 : 엄기옥, 김상진, 고광언 외 임원일동

世界의 奇人

아가씨에 장난으로 입댔다 코 물어뜯긴 王室高官

자주 입맞추는 石像에 毒…목숨잃어

2시간 47분짜리 영화 뽀뽀 191번 처녀 4~5백만명 맞은 軍人像도

기억할만한 키스

키스-입맞춤의 종류도 여러가지라는 것쯤은 어린이도 아는얘기다. 더구나 키스가 인사고 예절인 서양에는 역사속에서, 전설에서 갖가지 얘기로, 유명한 키스, 기억할만한 키스, 중요한 키스얘기도 많다. 생명의 키스도 있고 죽음의 키스도 있고 돌에 새겨진 키스, 필름에 담긴 키스도 있다. 대니·비더맨이 모아놓은 갖가지 기억할만한 키스얘기를 모아본다.

◆생명의 키스=창세기2장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만든후 그입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담은 키스를 통해 신에게서 영혼을 받은것이다. 이 성스러운 키스로 인해 키스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등장할때가 많다.

◆이베리아키스부조(기원전3백~1백년)=남녀간의 키스를 소재로한 미술작품중에서 가장 오랜 유물은 기원전 4~1세기께로 추정되는 이베리아의 부조가 있다. 돌위에 새겨진 이 키스광은 남녀가 입맞추는 옆얼굴모습이 어깨위부분부터 묘사돼있다. 스페인 오수나에서 발견돼 근년에 마드리드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전시됐다.

◆유다의 키스(기원전29년)=신약성서에의하면 예수의 열두제자중에 하나인 이스카리오트의 유다가 겟세마네동산에서 예수를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은화30개를 받고 예수를 팔고 그를 알려주려는 표적의키스였다. 유다의 키스-그것은 배반의 키스로 남았다.

◆죽음의 키스(14세기)=중세이탈리아의 한 여인은 시집와서 그집안에 비장된 보물을 감추기위해 대리석상의 입술에 키스하는 풍습이 있는것을 알고 석상입술에 독을발라 시집식구를 독살했다. 그여인은 두사람을 죽이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으나 그방에 있던것은 보물이 아니라 불구의 아이하나였다. 그집안의 가장은 키스의 독으로 죽어가면서 여인을 저주했다. 여인의 아이와 그 7세후손까지 모두 불구가 된것이라고.

◆잠자는 미녀를 깨운 키스(17세기)=고전동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1백년간의 긴잠을 자는 공주의 잠을 깨운것은 아름다운 왕자의 키스였다. 이 키스얘기가 처음 등장한것은 1697년 샤를·페로가 쓴 「잠자는 미녀」였다. 그러나 잠자는 미녀얘기는 그보다 일찍 여러가지 얘기속에 등장했었다.

◆토머스·새빌랜드의 코를 물린 키스(1837)=1837년 대영제국 빅토리아왕조때 토머스·새빌랜드는 캐롤린·뉴튼에게 장난스럽게 키스를하려고 대들었다. 별로 가볍게 넘길 기분이 아닌 아가씨는 그만 그의 코를 물어뜯었다. 새빌랜드는 뉴튼을 고소했으나 판사는 『남자가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키스를 할때 여자는 남자의 코를 물어버릴 권리가 있다. 만약 그렇게해서 즐겁다면』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와·오귀스트·로댕의 키스(1886)=서독의 조각작품중에 너무나 유명한 작품 「키스」는 로댕의 1886년작이다. 단테에게 영감을얻어 만든 이 키스하는 나체연인상은 고전예술시대의 종막을 장식하는 거작이었다. 로댕은 이작품을 『주변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의 예술세계를 형성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로 영화에 등장한 키스(1896)=1896년4월 토머스·에디슨이 만든 「키스」에서 배우 존·C·라이스와 여배우 메리·어윈이 영화사상 최초의 키스를 했다. 브로드웨이 희극 「윈도우존즈」에서 한장면을 찍은 것으로 당시 동전 한잎으로 볼수있던 활동사진관의 전시용영화였다. 상영시간은 30분.

◆역사상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석상(19세기말)=풀리오·롬바르도가 만든 기다렐로·기다렐리라는 16세기의 용감한 병사상이 이탈리아 라벤나미술관에 전시됐다. 1800년대 후반이 석상에 키스하는 여자는 멋진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서 잘살게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이후 약4~5백만의 처녀들이 기다렐리의 차가운 돌입술에 키스를 했다. 이 수많은 키스로 병사의 입술에는 붉으레한 생기가 돌아났다.

◆191번의 키스가 나온영화(1926)=1926년 워너브러더즈사가 존·바리모어주연의 「돈·주앙」을 만들었다. 2시간47분짜리 이영화에는 수많은 미녀들과 돈·주앙의 키스장면이 191번이나 등장했다. 키스하나의 소요시간은 평균53초였다.

◆영화사상 가장 긴키스(1941)=영화 「그대는 이제 군인」에서 재인·와이먼과 레지스·투미는 3분5초가 걸리는 키스장면을 보여줬다. 전상영시간의 4%를 하나의 키스장면으로 쓴것이다.

▲키스의 종류도 가지가지, 역사에는 생명의키스를 비롯, 죽음의 키스에서 키스데모까지 입맞춤에 얽힌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다.

내년 패션

"거지"차림등장

파티복은 신데렐라같이

(파리)내년봄과 여름의 패션계에는 구멍나고 닳아빠진 차림의 옷이 다시 유행될 것 같다.

최근 파리에서 패션쇼를 가진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평상복은 거지복장이 유행된다 하더라도 파티복은 신데렐라 옷차림의 우아한 실루엣의 여성다움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계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파리의 패션에서 [illegible] 레이·가와쿠보씨는, 새해 봄·여름패션으로는 감자자루, 외과 수술용 가제, 삼베, 마같은 재료가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러 감을 찢거나 구멍을 낸 뒤, 다시 깁고, 한쪽깃을 닳아빠진 느낌이 들도록 색깔을 바랜다거나, 바지와 치마단을 가위로 잘라 거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새 평상복의 풍조가 된다는 얘기다.

물론 유행에 따른 새 옷은 다 비싸겠지만, 현명한 여성이라면 헌옷을 요령껏 이용, 적은 돈으로 유행을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지차림과 대조적인 스타일로는 치마길이가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르는 보드랍고 하늘하늘한 천의 날씬한 맵씨가 들여다 보이는 시·드루스커트, 혹은 허벅지까지 찢어진 스커트도 유행될 전망이다.

내년도는 특히 "뒷맵시의 해"로 등이 다 드러난 가운이나 발목·팔목을 동여맨 스타일과 허리를 강조한 원피스도 유력하며 커튼이나 리넨등 천연섬유가 단연 강세를 보일듯.

독자의 광장

잠자는 T.V.

이 원 용

(B.C주 프린스조지 거주)

10여년전의 일이다. 힘겹게 취직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난생 처음 19인치 칼러T.V.를 샀다.

안사람이나 주위사람들은 나의 T.V.구매에 대해 별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민 와서 제대로 직업도 못잡고 있다가 겨우 밥벌이하게 되니까 사치품(적어도 그당시의 우리에겐…)을 사전양해없이 덜컥 들고오니, 그네들의 언짢아 하는 심정도 이해가 갔지만, 왜 내가 취직이 되자마자 TV부터 먼저 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껏 정확히 모르고 있다.

내가 다른 것을 젖혀놓고 EATON에서 $480짜리 칼러 T.V.를 월부로 구매한 목적은 첫째, CREDIT CARD를 얻기 위해서였다. 장차 집도 구매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MORTGAGE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내 신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CREDIT CARD뿐이었기 때문에…. 둘째, 그 당시 집안에서 한국말만 쓰는 분위기에서 전혀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SESAME STREET를 시청케 하며, 조속히 영어습득의 기회를 부여코자했기 때문이고, 세째는, 한국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발을디딘, 극장도 없는 조그마한 고장에서 친척과도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간편한 오락시설을 제공하려는 뜻에서였다.

TV를 통해 얻은 크레딧·카드로 쉽게 은행 융게지를 받아 집도 마련, 그럭저럭 10여년 세월이 흘러간 지금 19인치 대신 26인치의 T.V.가 리빙룸 구석에 놓여있으나 한달전부터 잠만자는 불운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숙제며 바이올린연습을 다 마친 다음 T.V.를 보라고 매일 타일러도 마이동풍으로 두 아들녀석은 하키, 풋볼을 비롯 좋은 프로가 나오면 만사를 젖혀놓고 T.V.앞에 앉아 있거나, 다급하면 숙제를 하면서 T.V.를 보고 있으니 그 공부가 오죽했을까. 공부를 하려니 신나는 하키중계 「신」이 생각되고, 그것을 다 본 다음 하려니 피곤한 눈에 잠자는 시간이라 부랴부랴 해치워 버리니 그 성적이 좋을리 만무하다.

T.V.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의지만 지녔다면 만사 O.K.이나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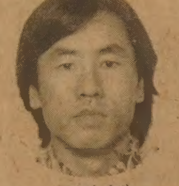
두번씩이나 케블라인을 끊으면서, 공부 마치고 T.V. 보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제대로 실천이 안되어 이번에는 강한 마음을 먹고 라인을 끊어버렸다. 그 바람에 일주일에 서너번 꼭 보고 싶은 것만 택하는 의지와, 가게일을 보고 밤 늦게 귀가후, 심야 영화프로에 재미를 붙여온 나자신이 「대를 위해 소를 죽인다」는 명분하에 희생의 쓴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T.V.가 눈을 감자 처음 며칠동안 정신적안정을 못갖던 아이들은 그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수도 없어 우선 해야될 숙제부터 다듬고, 음악이론이니, 피아노, 바이올린 따위 과외공부에 몰두하게 되어 학교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가끔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감상의 기회를 마련, T.V.에 대한 미련을 떨어버리게 할 작정이다.

아이들이 더 자라 자제력을 갖고 제 할 것을 다 마치고 좋은 프로만 선정, 시청할 때 비로소 우리집 T.V.는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활개를 칠 것이다.

조각가 장연탁씨 LA서 그룹전



◆장연탁씨

조각가 장연탁씨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LA에서 그룹전을 갖는다.

장씨는 배룡, 조현숙, 곽훈, 백연희, 박혜숙, 유영준, 노정란, 원영배씨등과 가질·그룹전에 〈Black Kite〉, 〈Wave〉등 서너점을 출품할 예정이다.

장씨이외에 주로 LA부근에서 활동중인 회화가들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는 LA 심일당화랑에서 열린다.

장씨는 내년봄 LA의 문화원에서 있을' 초대작가전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 바로 잡음 —

12월7일자 2면 코리아타운번영회 기사중 「맥주 $3」은 「맥주 $2」의 잘못이었읍니다.

멋그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폭스 ●세블 ●라쿤

토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토론토극장 흘러간 영화 대거 상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사 지바고등

연말을 앞두고 토론토의 다 영화관이 전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흘러간 명화, 70밀리 대형영화, 최신 문제작등 다채로운 프로로 영화팬들을 유혹하고 있다.

9일 현재 볼만한 각 극장의 영화프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지바고: 러시아 작가 보리스·파스테르나크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쥬리·크리스티와 오마·샤립이 주연했다. 아카데미 7개상 수상작

블루어와 러니미드의 러니미드극장(769-2709)에서 상영중.

◉아라비아의 로렌스: 데이빗·린 감독의 이 영화는 안토니·퀸, 오마·샤립, 알렉·기네스, 피터·오툴(로렌스역)등 기라성같은 남성배우들이 출연했다.

아라비아에서 영웅이된 영국군인 〈로렌스〉의 생애를 그렸다. 아카데미 7개부문 수상작. Yonge과 St.Clair의 힐리웃 극장(924-5511)에서 상영중.

◉파니·걸(Funny Girl): 바바라·스트라이센드와 오마·샤립 주연의 뮤지컬. 베이뷰와 쉐퍼드의 베이뷰·빌리지·시네마(222-5494)에서 상영중.

◉올리버: 고아인 올리버를 둘러싼 18세기 시대를 그린 뮤지컬. 아카데미 6개상 수상작. 시티홀 앞 쉐라톤센터극장(864-1412)과 블루어와 키플링의 웨스트·웃(239-1145)에서 상영.

◉지붕위의 악사(Fiddler on the Roof): "Is this the little girl & carry"란 주제 음악으로 더 유명한 영화. 슬프고 아름다운 가족용 영화이다. 에글링턴과 에비뉴·로드의 에글링턴극장(487-4721)에서 상영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카데미 10개부문 수상작. 이제 모두 사라진 미국 영화계의 별 클락·게이블과 비비안리가 주연한 70밀리 명작. Danforth와 Pape의 패리스 I(466-7226)에서 상영중.

◉현대묵시록(Apocalypse Now):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작품. 월남을 배경으로 한 잔인한 살상장면이 많아 어린이 관람불가이나 볼만한 문제작이다. 로렌스와 마캄의 세다브레극장(438-1291)에서 상영중.

◉스타워즈와 엠파이어·스트라익스·백등 두 우주공상 전쟁영화가 동시 상영중이다. 블루어와 베이의 유니버시티(924-2581)극장. 어린이들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로 입장권 하나로 영화 두개를 볼수 있다.

이밖에 19일까지 오킬센터에서 상연될 히트·브로드웨이·뮤지컬 피터팬이 좀 비싸긴 하지만($23.50에서 $12.50) 구경거리이고 임페리얼·식스, 욕데일, 스퀘어원등 각 지역에서 상연중인 뮤지컬 환상극 하이디즈·송(Heidi's Song)도 어린이들이 즐기기에 좋은 프로이다.

금년도 칸느영화제 우수작인 터키영화 욜(Yol)(컴버랜드 포: 964-5970), 흥행성이 짙은 장고와 신사, 드릴러 폴터가이스트, 문·라이팅등도 심심풀이로 볼만하다.

◆영화 의사·지바고에서 라라로 분장한 쥴리·크리스티.

◆어린이들이 즐길만한 영화 하이디의 노래.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연말수련회
협신기도원 개원 4 주년

하나님의 축복이 각 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시카고 미현교회에서 시무하시며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신 조인택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하고자 하오니 시내 각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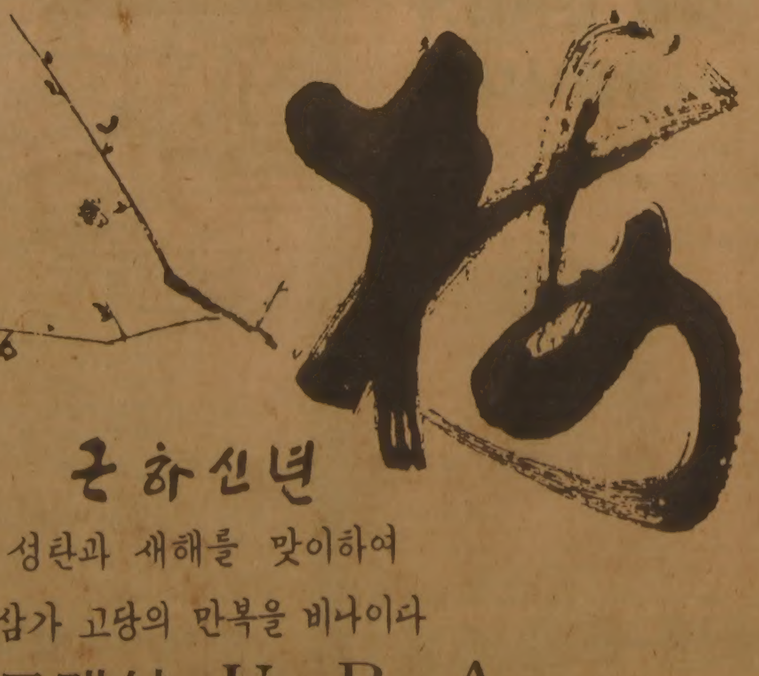
강사 : 조인택 목사
약력 : 총회 신학대학졸업
서울 신학대학교강사 7년
수도 성경학교강사 11년
서울 남산교회시무 14년
청계산기도원 관계
현 시카고 미현교회시무 중

일자 : 1982년12월27일(월) 오후5시~30일(목) 낮12시
장소 : 협신기도원
연락처 : 245-1687

준비물 : 성경, 찬송, 슬리핑, 백, 담요, 세면도구등 식사제공(금식은 자유)

주최 : 협신기도원
후원 : 협신선교협회

협신기도원(Wood Side) Hockley Valle Rd. HWY 18. HWY 50. HWY 27. HWY 400. HWY 9.



근하신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삼가 고당의 만복을 비나이다
도매상 U. B. A.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좌담회〉

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이 춘 수: 협동조합추진위원장(사회) ▲차 선 경: 실업인협회 회장 ▲김 태 진: 실업인협회 이사장 ▲문 인 식: 신의상사 사장 ▲김 현 모: 연합상사 사장

조합설립에 이의 없다

▲이춘수: 실협의 숙원사업이며, 3만 교민의 염원이기도 한 본협회의 협동조합을 설립 추진함에 있어 두분 도매상 사장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이를 저회들의 방향설정에 백분 참고하여야겠기에 오늘 이와 같은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 바쁘신데 감사한다.

▲문인식: 협회원의 여론이, 나아가서는 교민 전체의 여론이 실협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더이상 설립 추진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만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설립 이전에 향후 제기될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상,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즉 어떤 사람이 리더(Leader)가 되어 운영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현모: 실협이 협동조합을 설립함에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최초의 공식대화이고, 협회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측의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 우선 실협의 방향을 알고 싶다.

▲이춘수: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지만 두분 사장님과의 협상여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주시기 바란다.

▲차선경: 두 도매상, 즉 신의상사, 연합상사의 고객 절대다수가 우리 실협회원들이므로 두분 사장께서는 실협의 조합설립 방향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시고, 한편 염려가 되실 것으로 안다.

이점에선 지난 수년간 도매업을 생업으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제 개인적으로 죄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의 대화의 초점은 첫째 통합, 둘째 인수, 세째 신설의 경우로 축소할 수 있을 것같다.

물론 8백 이상의 실수요자를 가진 우리 실협이므로 조합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당연히 그 주도권(Initiative)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 인식되나 기히 도매업에 종사하시는 두분 사장님들과의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갈길을 설정코자 한다.

그래서 아직 조합의 정관을 확정치 않고 있다. 왜냐하면 두분과의 협상여하에 따라 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가 바람직(김사장)

▲김현모: 차회장이 제시한 통합, 인수, 신설 세가지중 신설에 관해서는 현 도매업자로서 생각치 않고 싶다.

통합과 인수중에서 택해야만 한다면 인수쪽이 용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이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운영, 관리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이든, 인수든 구체적인 기본단계의 설정이 우선해야 될줄 안다.

▲이춘수: 통합이나 인수의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화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문인식: 통합이나 인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담배 도매권과 It world (캐나다도매업자회원자격)의 성격이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여 주길 바란다.

▲차선경: 김사장께서는 실협의 조합설립에 전혀 이의가 없으며 통합, 인수, 신설중 인수쪽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주신데 비해 문사장께서는 아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같다. 우선 의사표명을 명확히 해주시고, 대화를 전개해 갔으면 한다.

▲문인식: (웃으면서) 나 역시 실협의 조합설립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인수나 통합의 택일문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나, 인수쪽이 우선 되어야할 것같다.

(중략)두분 김·문사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설립후에 닥쳐올 문제점, 유태도매상인들의 공격, National base wholesaler들의 압력에 대하여 심각히 피력하였다.

▲차선경: 두분께서는 인수의 쪽이 가장 용이하며, 합리적일 것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셨는데, 그렇다면 두분은 조합 내지는 도매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다는 얘긴지요?

▲문인식: 그렇지는 않다. 협회에서 대 주주(Majority)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선경: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협회의 조합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협회원의 의사에 의해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의 경우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필연적이다.

소주주 무방(문사장)

▲문인식: 나 자신은 소주주(Minority)가 된다해도 협회에서 원한다면 소주주로서 참여할 용의가 있다.

▲김현모: 조합의 기본정책 설립이나 사업전략을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소주주로서 조합의 운영에 참여한다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협, 신의상사, 연합상사의 각기 다른 이 삼자가 교민사회에의 기여, 협회원 전체의 이익이라는 대전제를 생각한다면 양보못할 문제도 없다.

▲문인식: 조합의 방향이 설정됨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차선경: 김사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 전부가 교민사회에 기여, 협회원의 전체 이익이라는 대전제를 우선하여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이춘수: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협회의 차회장, 신의의 문사장, 연합의 김사장 세분 다가 인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다. 이제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어떨는지?

▲차선경: 아직 확정지을 시기가 아닌 것같다. 우선 협회의 조합추진 초창기부터 우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김태진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보자.

▲김태진: 오늘의 이회의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기쁘다. 섣불리 통합이다, 인수다라고 의사를 결정치 말고, 통합의 구체적 방법, 인수의 구체적 방법을 연구해 봄으로써 현실적인 가능성과 비현실적인 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모: 통합내지는 인수의 어떠한 경우에도 두 회사가 똑같은 비중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중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이후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차회장 : 경제성의 원칙 무시못해

▲차선경: 교민사회에의 기여, 기존 도매상에 대한 피해 극소화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조합이 협회원의 귀중한 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지네스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나 냉정한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김현모: 얘기의 방향이 달라지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같은 한국사람이 같은 동족의 도매상에 이처럼 냉정할 수 있는지, 냉엄한 현실에 회의가 간다. 협회에서는 8백 이상의 막강한 회원수만 과시할 것이 아니라, 한인도매업자의 지원같은 캠페인을 벌일 생각은 없는지?

▲문인식: 그점에선 나도 동감이다. 누가 하든 우선은 협회원들이 한인도매상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춘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앞으로 두분께서는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자기 회사의 자산, 부채, 권리금(Good Will)에 대한 의사의 일치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김현모: 자산이나 부채는 수치의 문제이므로 간단하다. 그러나 권리금의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차선경: 얘기가 너무 급진전하는 감이 있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차후 신중히 검토키로 하자.

▲문인식: 나 개인적으로 연합의 김사장과 대화할 용의는 있다. 그러나 자기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나는 개인의 사심이나 이해가 결부되지 않는 실협의 간부들이 김사장과 나 개인을 개별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태진: 오늘의 회의는 대단히 수확이 큰 모임이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가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각기 노력하자.

▲차선경: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두분 사장께 감사드린다. 이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두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가 중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춘수: 김이사장과 두분 사장의 귀중한 시간 대단히 감사한다.

K.B.A. 교환센터

◉10Feet Open Cooler(선반 3층 Good Condition)을 가지고 있음.
2Door Pop Cooler와 교환하기를 원함.
(766-8849 문남귀)
◉4Feet card Rack 구함.
(481-2311 양정우)
◉4Feet Card Rack 8개 있음.
(845-5445 박만기)
◉4Feet 길이의 벡커에서 쓰는 Shelf 구함
(421-6880 Mini Mart)
◉6feet Icecream freezer 구함. (469-1521 Mrs.백)

R.D.A. 보고서 Intercity는 O.K.

Metro News는 비협조적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협회는 대행업자(agent)와의 계약하에 잡지진열수당(R.D.A.)을 1월1일분부터 획득하기로 계획하고, 출판업자와의 접촉에 착수했다.

실제 매상잡지의 수량파금액파악의 번잡을 덜기 위해 주요공급자(distributor)인 Metro News와 Intercity에 의뢰, 콤퓨터에 의한 회원별 보고서 작성을 교섭한바 Intercity와는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조건에 완전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Metro News는 지난달부터의 계속적인 면담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말의 분주한 일정등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면담을 내년초로 미루어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R.D.A.는 중간업자에 관계없이 출판업자가 직접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니만치 일정한 보고서만 구비 제출하면 우리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므로 지연의 이면에 서연치 않은 흑막이 있다면 협회는 전회원의 협조하에 모종의 대책을 강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알 림〉

◆밀크·아이스크림·빵등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상품을 거래하는 회원은 상점을 매도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회사에 인계인수 일자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구회원간에 발생하는 리베이트의 구분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권도 티켓대금 협조요망

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선수권대회의 티켓판매에 협조하여 주신 회원제위께 감사를 드리고, 대금을 우송하여 주신 수고에 사의를 표한다. 협회사무실에서는 하루 속히 이를 매듭지어 태권도협회에 전달하고자 아직 마무리지어 주시지 않은 회원 제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바쁘신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회의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협회 사무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실협 칼렌다가 나왔읍니다!

운보 김기창화백의 화폭이 담긴 아름다운 협회 칼렌다가 서울에서 도착하여 새해의 선물로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직접 또는 인편으로 협회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당 1부)
이는 850회원에게의 우송료 1,700불을 절약하기 위함이오니, 회원제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실협총무 김 풍 수

1983년도 이사선임 명단공고

1982년 10월22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선임위원회가 선임한 이사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가나다순)

1.구이사(1년조)

고정배, 김명정, 김용규, 김태진, 박경택, 박광철, 박찬도, 배경락, 서준경, 송재규, 원종필, 유영갑, 유영갑, 이상철, 이춘수, 이학헌, 이 휘, 임철원, 장가진, 장추국, 조한권, 최상수, 한천석, 함덕상, 홍사렴

2.신이사(2년조)

이영민 오샤와 실협
조용구 해밀톤 실협
김관영
박남희
박천봉
서동준
송기선
송완일
우희두
이진효
임승철
전기석
최복기
장준남 도나쓰업
강창흡 철물업
김희삼 자동차 바디숍
나상선 카페테리아
이동환 야채및 화초업
이형태 클리닝업
최장복 도나쓰업
최호영 기술업종
현영일 회계업
강기원
서정길 태권도

3.당연직 이사(집행부 회장단)

차선경, 조기연 총 51명

1982년 12월9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선임위원회
서 준 경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Dr.Choong T. Yoon(Dentist)	윤중태
Olympia Square Gift Shoppe	홍기만
Kay Cleaner	강춘자
Stanley's Smoke Shop	정해문
Pik Kwik Food Mart	윤길웅
Sherwood Variety	장인수
Young's Discount	김용준
Big M Variety & Grocery	박남월
Pritchard Grocery	김춘탁
Port Credit Convenience	김철수
Kim & Associates	김명숙
Sunnyside Supermarket	안국태
Tony's Grocery	이혁균
Lawrence Variety	어옥련
Town Milk & Variety	박필재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86년 서울서 만납시다"

뉴델리 아시안게임 熱戰16일 聖火도 꺼지고…

◇亞洲제패 7人의 鐵拳들 복싱에서 아시아를 제패한 자랑스런 7명의 金메달리스트들. 왼쪽으로부터 李海正, 鄭鎔範, 金東吉, 李南儀, 文成吉, 許永模, 洪起鎬. 【신문공동취재단3日=聯合】

한국 金28개…綜合3位
선수단 내일하오 凱旋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뉴델리여 안녕, 86년 서울에서 다시만납시다』 16일간 뉴델리 제9회아시안게임을밝히던 성화가 4일저녁꺼졌다.

폐막식이 펼쳐진 네루스타디움하늘에는 아시안 게임 대회기와 주최국 인도기, 그리고 다음대회 개최국 한국의 태극기가 펄럭이었다.

金메달28, 銀메달28, 銅메달37개로 종합3위의 목표를 이룬 한국선수단은 6일하오 1시30분 KAL전세기편으로 개선한다.

아시안 게임에 3번째 참가한 중공은 金61, 銀51, 銅41로 30년간 아시아스포츠를 지배해온 일본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은 수영, 복싱등에서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金57, 銀52, 銅44로 종합2위에 그쳤다.

메달경쟁의 열기가 가신 4일 네루·스타디움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오 7시(한국시간) 참가 각국 선수단이 입장, 대회기와 인도국기가 게양되고 이어 제10회 대회개최국인 한국의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라자·발렌드라·싱아시아경기연맹(AGF)회장의 폐회선언과함께 성화가 꺼지고 선수들은 이별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악수를나누고 스타디움을 떠났다.

대회마스코트로 선수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기코끼리도 동물원으로 돌아갔고 각국민속무용단들의 작별인사를 받으며 스타디움으로 나섰다.

전광판에는 『86년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란는 글씨가 아로 새겨졌다.

복싱 7體級서 金
남자농구 中共꺾고 優勝

한국은 3일밤 최종일경기에서 예상을 뒤엎고 9개의 金메달을 추가했다.

9개체급결승에 오른 복싱에서 許永模(라이트·플라이급) 文成吉(밴텀급) 金東吉(라이트웰터급) 鄭鎔範(웰터급) 李海正(라이트·미들급) 李南儀(미들급) 洪起鎬(라이트·헤비급)등 7명이 金메달을 따냈으며, 남자농구팀이 전대회우승팀인 중공에 85-84로 승리,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 한국의 金·銀이 확정된 배드민턴 여자복식결승에서는 黃善愛·姜幸淑조가 金錬子·柳尙希조를 2-1로 물리쳐 우승했다.

權鉉珪(라이트급)와 朴基哲(페더급)은 2개의 銀메달을 따내 12명의 복서가 모두메달리스트가 되는 대회사상 가장큰 수확을 거두었다.

金總理、뉴욕着

【뉴욕=河長春特派員】南美순방길에 나선 金相浹국무총리는 3일간의 비공식방문을 위해 3일하오8시(현지시간) 뉴욕에도착했다.

金총리는 뉴욕방문을 끝낸뒤 6일첫 南美순방국인 콜롬비아를 방문, 벨리사리오·베타쿠르 대통령을 비롯한 콜롬비아고위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현안등을 논의한다. 金총리는 이어 페루와 칠레등을 차례로 순방한다.

柳民韓총재 반려
金鉉圭議長 辭表

柳致松民韓黨총재는 4일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이 제출한 辭表를 반려했다.

金의장은 83년도예산처리와 관련한 黨內일부의 비판에 반발하여 辭意를표명했다가 4일 정식으로 辭表를 제출했었다.

하편 金의장은 辭表가 반려된후 『사회파동이 장기화 되면 黨에 이로울것이 없다고 판단, 柳총재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우수創案 공무원 14명 어제施賞式

총무처는 4일 재무부의 李賢圭행정사무관, 철도청의 崔鍾玉기계기좌등 14명의 공무원을 우수創案者로 선정, 이날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창안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행정제도분야가 6건, 과학기술분야가 8건으로 이들의 명단과 창안제목은 다음과 같다.

◇행정제도▲金賞=李賢圭재무부행정사무관(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윤송금에 대한 送金稅과세) ▲銀賞=李東旭경제기획원행정사무관(차관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방안) ▲銅賞=金容得철도청행정사무관(철도청수요도입물자의 引受渡및조작비 정산절차개선) 金周昆산림청농림기좌(입목매목조사용자귀제작) 崔光植치안본부경위(해외여행자신원조사업무개선)

◇과학기술▲金賞=崔鍾玉철도청기계기좌(객차의자원절약을위한 설비및 기술개발) ▲銀賞=孔暢源철도청철도기장(교직류 전기동차용집전장치의수습판구조개선) ▲銅賞=康舜雨전매청농림기좌 趙重權〃농림기사보(연초의空胴病방제용 적심기구개발)

政治자금 10億 政黨에 곧配分
民正5억·民韓2억7천·국민8천만원

中央選管委는 全經聯등 경제단체로부터 총10억9천5백만원의 정치자금을 기탁받아 곧 각정당별로 배분키로했다.

鄭範齊중앙선관위사무처장은 4일 『全經聯、商議、貿易협회등에서 총10억9천5만원이 기탁되었으며 이중약2억원은 指定기탁금』이라고 말하고 이를 院內議席비율로 民正·民韓·국민당등6개정당에 배분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50개기업으로부터 募金키로 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일현재 64개기업들이 기탁해왔다』면서 정당들의 年末자금사정을 감안, 가능한한 빨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4일 현재 기탁된정치자금가운데 지정기탁금을 제외한 기탁금의 의석수별 대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民正黨5억원▲民韓黨2억7천만원▲국민당8천만원▲民權黨1천3백만원▲新社黨1천3백만원▲勤農黨3백30만원

전국 숙박·목욕업자가족
내년부터 醫療保險 혜택

전국의 숙박·목욕업자와그 가족들이 내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4일 숙박·목욕업자들에 대한 2종(직종)의료보험조합 설립을인가, 대한숙박·목욕업 중앙회(회장 林點錫) 회원등 9만4천4백83명(업주 1만7천8백27명 가족7만6천6백56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기로했다.

보사부에 보고된 이들의월평균소득은 30만8천원으로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한달평균 9천2백58원이며 보험요율은 3%가된다.

이번 숙박·목욕업자들의 2종의보조합설립은 이·미용사회 문화예술인단체 택시조합 양곡상조합에 이은 5번째 직종의보조합이다.

美、日의 對韓側面지원 기대
日紙보도 南北韓군사력 不均衡 심각
軍事차관增額 어려워…日서 經協해줘야

【東京=宋李東特派員】美國무성및 국방성관계자들은 南北韓군사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지적, 열세에 있는 한국의 방위력강화를위해 일본의 측면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의 도오꾜(東京)신문이 4일 美언론인스티븐·배러스의특별기고로보도했다.

美국방성사정에 정통한 배러스씨는 이기고에서 美국무성 슈·스미드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북한은 최근 주한미군의 A10근접공격기를 위협하는 2SU23對空砲및 한국전차의 주력인 M48A에 위협적인 對戰車 사가미사일 배치, 韓·美양군에 큰위협이 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열세만회를위해 미국의 군사차관증액을 기대하고있으나 82년도 對韓군사차관 1억6천6백만달러에 2천9백만달러를 증액하려던 레이건美대통령의 예산수정안이 의회에서 거부돼 한국군은 레이다경보수신시설등 주요장비조달계획의 입부를 미루어야할지 모른다고 배러스씨는 밝혔다.

美당국은 한국이 무기구입자금조달을위해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해줄것을 바라고있으며 對韓경협문제를 일본새정권의 최대우선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이기사는 밝혔다.

에브렌 터키大統領 오는20일 公式訪韓

◇에브렌 터키大統領

케난·에브렌 터키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에브렌대통령은 訪韓기간중 全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관계 강화및 통상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頂上회담에서는 한국기업의 터키진출문제와 문화협정체결 추진문제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에브렌대통령의 이번 訪韓에는 딸 쉐나이·귀르비트여사와 일테르·뷔르크멘외상, 세츠멧·레피크·파신 對外경제담당 국무상등 공식수행원 20명을 포함, 모두77명이 수행한다.

에브렌대통령은 국립묘지와 釜山유엔군묘지에 헌화하고 각종 산업시설도 시찰할 계획이다.

에브렌대통령은 訪韓에 앞서 中共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歸路엔 방글라데시도 공식방문한다.

에브렌대통령의 訪韓일정은 다음과 같다.

▲20일 하오=金浦공항도착
▲21일=국립묘지 獻花, 全大統領주최 만찬, 韓·터키頂上회담
▲22일=釜山유엔軍묘지헌화, 산업시찰
▲23일=기자회견, 離韓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큰뜻 이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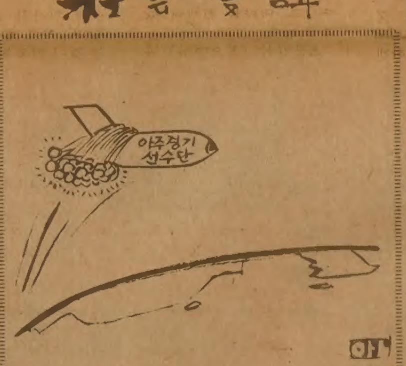
▲天道敎釜山市敎區=1백28만3천70원
▲(株)三義工業대표이사 변희선씨외직원一同=50만원
▲銅雀區舍堂洞동작삼익아파트주민一同=20만원
▲天道敎三千浦敎區=15만7천3백원
▲天道敎말등데敎區=12만9천원
▲天道敎馬山市敎區=11만5천5백원
▲天道敎東釜山敎區=11만5천원
▲天道敎泗川敎區=11만원
▲天道敎南大邱敎區=10만4천원
▲서울中區新堂洞267의69동일합판상사 김재호대표외 직원一同=15만1천3백원
▲東大門경찰서종로6가파출소방범위원회위원장조한변一同=10만원
▲匿名의독자=1만원
【소년한국접수】

<4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天道敎釜山市敎區 1백28만원
(株)三義工業 50만원
동작삼익아파트주민 20만원
동일합판상사 15만원
天道敎三千浦敎區 15만원
〃 말등데敎區 12만원
〃 馬山市敎區 11만원
〃 東釜山敎區 11만원
〃 泗川敎區 11만원
〃 南大邱敎區 10만원
종로6가파출소방범위원 10만원

社会漫評



地平線

워털루 들판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軍을 敗亡시킨 英國의 웰링턴장군은 그의 勝戰이『워털루가 아니라〈이튼〉의 校庭에서 주어진것』이라고 말했다. 또 普佛戰爭에서 승리를거두고 개선하던 중 프로시아의 몰트케장군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에 답하여『이긴것은 우리가 아니다. 몇10년을 잘 먹지도 못하면서 목숨을걸고 敎育에 이바지 해온 학교 교사들의 功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다. ▼두 名將은 다함께 勝戰譜에서 學校와 교사와 敎育의 은덕을 기리는데 인색치 않았다. 敎育은 흔히 그비중이 매우 크고 그값어치가 비길데 없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일컬어 진다.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때에 이미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사업을 엄격히 추진하였고 古代中國서는 五穀豊饒、戰勝등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던 神聖한 장소, 즉「學」「校」「庠」「序」「東膠」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오늘의 敎育은 全人性과 함께「民主化」·「社會化」되고「科學技術」에 치중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비중이 크고 성스럽기만 하던때는 교육의 혜택도 사회계층에 따라 제한돼 있었다. 하나 지금은 인간의 基本權의 하나로서 누구나 그것을 받을 權利와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 있다. 동시에 社會와 연결되면서 産業社會 시대에 이겨 나가도록「汎技術敎育」을 일반화해가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비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轉換期」하의 교육문제를다룬 S大學주최 심포지엄에서는 목표도 이상도 기능도 定立되지않은 속에서 교육이 技術官僚化사회의 기능공을 키우고있고 人間性을 상실케해 간다고 개탄된 바 있었다. 우리의 敎育理念은 그래도「最善我」의 구현,「弘益人間」의 발양이란 바탕위에 서 있다. 그동안의 高度成長도 敎育이 큰 몫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成長을 主導해 나갈 역군을 길러낼 일은 敎育者에 의존되는게 크다하겠다. ▼「과밀敎室」「박봉敎師」가 우리의「勝戰譜」를 써가는 중이다. 오늘로 다가선「교육헌장」선포 14돌은 이런뜻에서 교육계와 사회에서 감회가 새롭다. 또 그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3천7백명의 포상이 돋보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크고 성스러운 공로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거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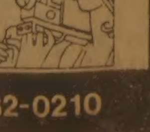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조성옥박사님 환영 리셉션에 바쁘신중에도 찾아와 주시고, 후원성금과 꽃다발을 보내주신 단체와 교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지상을 통하여 드리옵니다.

토론토대학
한국학과후원재단
이사장 윤 여화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홍익 동문
연말파티 초대

와우동산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해를 보내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와우동산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쉬움을 풀고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디 부부동반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눕시다.

때 : 1982년12월18일(토) 오후7시부터
곳 : 회장자택 1107 Islington Ave. 주차장 1100 Islington Ave. Westown shopping center 내
준 비 : 본회의 임원들이 저녁과 음료일체를 준비합니다
연락처 : 회 장 이근호 239-9422
부회장 여정웅 242-5194
부회장 황수혜자 626-8455
총 무 김홍수 255-5269

홍익대학 동문회
회장 이 근 호

波 노동자·政敵 통제풀면 美서 경제制裁 완화

負債상환 연기 借款확대
漁業權 회복 항공운항도

【워싱턴AP=聯合】 미국은폴란드당국이 노동자와 정치적반대자들에 대한 통제를완화할경우 미국의 對폴란드경제제재조치도 완화할 용의가 있는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관리들은 오는13일 폴란드 계엄선포1주년 이전에 폴란드 상황의 일부개선조치가 나올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레이건美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발전을 촉진하기위해 對폴란드 경제지원을 제안할준비를 갖추어가고있다고말했다.

미국의 완화조치중에는 폴란드부채의 상환연기, 식량 선적을위한 상품차관확대 그리고 폴란드의 어업권회복과 항공운항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것이다.

한편 폴란드軍政지도자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은 폴란드남부 실레시아에서 광부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국내정세가 안정된다면 과도기간중의 무질서를 규제할 부분적인 규정만을 남기고 산업의 軍事化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야루젤스키는 또 미국은 폴란드에 계엄이 선포된이후 광부들간에 무질서를 조장하는등 폴란드를 해치기 위한 정책을 펴고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같이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한 경우 對美관계재검토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레이건、콜롬비아訪問 콜롬비아를 방문중인 레이건美대통령이 3일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벨리사리오·베탄쿠르대통령과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보고타(콜롬비아) 3日AP電話=聯合】

새情報질서 확립하자
유네스코會員國 합의

【파리UPI聯合】 1백58개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회원국들은 3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국제정보질서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UNESCO회원국들은이날 2주간에 걸친 UNESCO회의 마지막날 토의에서 후진국언론의 질적향상과 관련, UNESCO가 제시한 언론계획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 이계획은 세계정보 유체계의 개선을통해 제3세계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고언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西方언론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후세인·안드로포프 크렘린宮서 회담

【모스크바UPI聯合】 후세인 요르단국왕이 이끄는 아랍연맹7인대표단은 3일 크렘린궁에서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 회담을갖고 아랍관측 중동평화안및 蘇·아랍관계를 논의했다.

中共 신임駐美大使 章文晋부외상 유력

중공은 章文晋부외상(67)을 신임駐美大使로 임명할것으로 3일 알려졌다.

章은 만일 駐美대사로 임명될경우 지난79년1월美·中共관계정상화이후 두번째 駐美대사가 되는 셈이다. 【워싱턴=AP】

金正日 몰타방문

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金正日이 영어공부를하기 위해 몰타를 방문중이라고 몰타의 親정부계 신문 로리존트紙가 2일 보도했다.

과거 영국식민지였던 몰타에서는 영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몰타정부는외국인학생을 위한 영어학교를 운영하고있다. 【발레타(몰타)=AP】

英、蘇무관 追放令

영국외무성은 3일 駐英소련대사관무관1명에 대해「직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이유로 추방령을 내렸다고발표했다.

외무성대변인은 蘇聯해군 대령 아나톨리·파블로비치·조토프와 그의 부인이 8일까지 영국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런던=AP】

波、戒嚴해제 難望

폴란드에 선포된 계엄령은 일부보도와는 달리 오는23일 이전에는 해제되지 않을것이라고 폴란드의회소식통들이 3일 말했다.

의회소식통들은 의회가 계엄해제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1讀會를 13일 시작할것이며 상당기간 정치토의절차를 거칠것이기때문에 오는23일께나 최종표결에 붙여질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샤바=AP】

외신안테나

루마니아 外交官 포도르、美에망명

北美駐在 루마니아의 나폴레온·포도르란 고위 무역관계외교관이 지난7월 비밀리에 미국으로 망명, 현재美서부해안지역의 모처에 은신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3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UPI】

와인버거 유고到着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브란코·마물라 유고국방상과 회담하기위해 1일간 일정으로 3일 유고를 방문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회담에서는 유고의 美製무기구입문제도 논의될것으로 내다봤다. 【두브로브니크(유고)=聯合】

加、햄블턴教授진술 안드로포프 만났다

소련을위해 간첩활동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캐나다경제학교수 휴·햄블턴씨(60)는 3일 자신은 지난75년 모스크바에서 당시 KGB(소련비밀경찰)위원장이며 현소련공산당서기장인 유리·안드로포프와 만났었다며 그는 자신의 캐나다의회의원출마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런던=聯合】

레바논、美介入요청

아민·제마엘 레바논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군대의 철수와관련,「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레이건 美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이같은 조건을 철회토록「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다고 레바논의 안·나하르紙가 3일 보도했다. 【베이루트=AP】

얼굴 에브렌 터키大統領
陸士·陸大졸업한 직업軍人
換率현실화등 經濟에 注力

오는20일 訪韓하는 케난·에브렌터키대통령(64)은 陸士·砲兵학교 육군참모대학을 졸업한 직업군인출신으로 강직한성품의 소유자.

58년부터 59년까지는 駐韓터키군 여단참모장으로 근무,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는 에브렌대통령은 예비軍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터키軍총사령관등 軍要職을 거쳤으며 터키軍총사령관으로 재직중 80년9월12일 국내치안이 혼란해지고 경제가 악화되자 군사혁명으로 全權을장악, 지난달 7일 국민투표로통과된 새헌법에의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에브렌대통령은 군사혁명성공후 左右翼간의 정치테러를 뿌리뽑는 동시에 換率현실화와 外資도입을 권장해 1백%에 달했던 惡性인플레를 35%(81년)로 잡는등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신임을받고있다. 西歐제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철저한 反共정책을 펴고있는 에브렌대통령의 취미는 독서 음악감상, 승마, 사격등 다양하며 가족관계는 지난 3월 부인의 사망으로 출가한 딸만 3명있다.

社說

새로와질 友情架橋
—에브렌大統領 訪韓의 意義와期待

전통적友邦인 터키共和國의 케난·에브렌 大統領이 오는20일부터 4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발표되었다. 全斗煥 大統領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에브렌 大統領의 최초의 訪韓에는 令夫人 쉐나이·귀르비트女史를 비롯하여 일테르·튀르크멘外相및 세르메트·파산對外經濟協力擔當國務相등 공식수행원 20명을 포함한 총77명이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한국인이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는 그 西아시아友邦의 국가元首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여 우리는 먼저, 에브렌 大統領일행이 이곳에서 충심으로부터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가 터키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과 유대의식의 이유는 여러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터키는 50년대의 韓國戰爭당시 1개여단 규모의 정예兵力을 파견하여 우리를 도와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은 戰友愛的 유대의식은 지금도 굳건히 간직되어있다. 또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接點에 위치하여 政治·經濟·文化등 여러分野에 걸친 祖國近代化作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공통적인 문제제기를 정력적으로 해결해 가는 중이다.

뿐더러 한국과터키는 國語의文法構造에 상통점이 많으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적에 民族形成의 來源에도 近緣性이 적지않다고 한다. 나아가서 두나라는 다같은 半島國家로서 미묘한 국제관계의 交叉地帶라는 위치인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터키의 자랑스러운 國父 케말·아타튀르크의 近代化및 自主獨立의 政治理念에 따라 그友邦이 共和國을 선포한것은 1923년의 일이다. 하나 近代化改革과 自由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추진하는 가운데 터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착잡한 우여곡절을 겪어온것도 사실이다. 80년9월의 軍事革命에 이어 지난 10월에 공포된 새憲法은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배합했거니와 大統領임기는 양국이 동일하게 7년單任制다.

오늘의 터키는 국민의 단결력과 근면성의 보람으로 눈부신 開發노력 끝에 中進國수준에 발돋움한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터키는 NATO(北大西洋條約기구)의 加盟國이자 EC(유럽共同市場)의 準會員國이다. 親西方·反共路線을 外交政策의 基調로 삼으면서도 相互主義 門戶開放政策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韓國과의 변함없는 友誼를 일관해왔다는 사실을 특기할수 있겠다.

그러한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멀지않아 서울에서 헹별보게될 韓·터키頂上會談은 가장 화기애애한 友好的분위기속에 양국의 공동관심사를격의없이 다루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親善紐帶의 가일층 공고화에 입각하여 폭넓은 通商진흥및 韓國企業의 터키開發作業참여문제가 진지하게 협의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태서 양국의 뿌리깊은 友好的정신에 어울리는 文化交流의 획기적인 증폭方案도 논의되리라고 예상된다.

오늘의 國際關係는 友好的 同伴者意識에 바탕을 가진 經濟協力의 深化가 훌륭한 互惠的 開發成果에 직결된다는 사례를 非一非再하게 입증해주고있다. 交易의 확대에 더하여 社會間接資本의 充實, 資源開發과 農近代化,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서 진일보한 重化學工業의 건설등에 걸쳐 한국과 터키는 合作投資와 技術移轉및 經驗交換으로 協力할 분야가 많다고 믿는다. 터키産業의 태반은 國土의 西部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東部開發이 刮目注視된다고 알려져있다.

韓國과 터키는 비유하자면 가까운 나라이다. 이달下旬에 全斗煥 大統領과 케난·에브렌大統領간의 頂上會談은 양국의 友好·協力관계 발전에 새里程標를 수립할 것이다. 東北아시아와 西아시아를 잇는 전통적友邦간의 交流 活性化는 두말할것도 없고 經濟分野의 實質協力深化에서도 고무적인 新境地 개척노력이 뚜렷하게 증명되도록 念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惠澤의 균형있는 調和
—兵務행정 改善에 잊어안될 焦點

병무청은 防衛召集대기기간의 1년단축과 兵役미필자의 海外여행허가기준완화를 비롯한 13개항의 병사행정제도改善策을 마련, 명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하였다. 많은사람들의 관심을 끌게하는 이번 개선책은 특히 해외여행자의 경우 허가의 요건뿐아니라 그 기간의 5배연장(보증인의경우), 허가권의 지방병무청장위임, 수시심의제의 실시같은 획기적인 면이 두드러져 있다.

그밖에도 개별입영제의 확대와 해·공군출신 예비군의 검열점호면제, 병사민원서류의 간소화와 진단서발행병원의 일반화, 일부 증명서첨부제의 폐기등 상당히 부드러워진 내용들이 많아보인다.

이와 비슷한 改善의 진행이 그간이라하여 전혀 없었던것은 물론아니다. 하지만 변화의 범위가 좀 넓고 다양하여 수혜대상및 내용이 종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느낌이 앞서는것도 사실이다.

생각하면 이런 제도나 시책의 진전이 따를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가지일듯 하다. 人的보충자원이 충분하고 입구의 과잉현상이 사회문제화했을뿐더러 산업과 생활활동분야에서 엿보이는 社會的 發展的 변화가 크게 변함에서 먼저 이를 감수할수 있을법하다.

또 해외진출의 길이 넓혀지고 개방시대의 진척성이 날로 고조되는 한편 兵事風土의 건전한 정착과 함께 병역의무에 대한 遵法정신이 신뢰될수 있는 수준에 이른 현실이 그런 전진을 바라보게도 했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무당국이 병사행정실시과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社會의 발전현상을 포착하면서 規制에 신축성을 보이는 처사를 적절한것으로 평가함에 인색할 생각은 없다. 그뿐아니라 장차 역시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굽혀서야 하리라고 보는 터이다.

하나 동시에 잊음없이 병행시켜야 할 다른 대목들이 있음을 여기 또한 지적해두지 않을수 없게 한다. 우선 未就業들이 받게된 受惠내용 못지않은 혜택·特典을 보다 충실한 兵役 행자, 즉 現役복무자에게 보장해야 할 문제이다.

의무의 충실한 이행, 그중에서도 現役복무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희생이 더 따르게 마련이다. 國防이란 지고한 임무는 그토대위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책상의 혜택 배려가 그들에게 보태져야 할것은 당연한 도리며, 윤리에 속한다.

현실은 이런 當爲에서 벗어난 측면이 없지않아 보인다. 병역법규나 사원호법규에 정해진 보호내용마저 사회적으로 덜 통한다거나 취직·진학·취학 조건등에 차등이 생기고 예비군복무상의 업무 또한 더 과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點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병무당국뿐 아니라 관계부처 모두에게 그렇다. 근래 너무 잦은 병역복무상의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매한가지라 하겠다.

이같은 施策的고려를 소홀히 하면 병역의 신성한 義務관념과 그 부과상의 「衡平」의 원칙, 국방사상, 兵事풍조에 손상이 생기기 쉽다. 옛날 한때처럼 「그레샴법칙」현상이 되살아나고 有事時에 대응하는 정신적活力에 영향이 미칠지도 모른다.

다른 부문과는 달리 兵務행정에선 항상 그事案의 양면을 옳게 가려야할 必然性이 이래서 유별나다하겠다. 이런 視角에서 우리는 이번 알려진 兵務행정개선을 하나의 「명암적 조치」로 평가하면서 병행시켜야 할 측면의 과제가 보태져서 빈틈없게 되기를 바라며 부언해 두련다.

人工심장 이식 合併症없어 24시간넘겨… 2週후 퇴원

◇美國 유타대학 메디컬센터의 윌리엄·데브리즈박사가 2일 바니·B·클라크씨에게 의학사상 최초로 인공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美유타州)3日AP電話=聯合】

【솔트레이크시티UPI聯合】 의학사상 최초로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미국의 은퇴치과의사 바니·B·클라크(61)는 합병증이 나타나지않은채 수술후 24시간의 고비를 넘겼다.

유타대학병원 대변인은 클라크씨가 2일 5시간30분에걸친 수술을 받은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잘 견디어 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의 플래스틱인공심장이 1분에 1백12번의 박동을 통해 5내지 7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으며 자신은 눈을뜨고 간호원에게 물을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클라크씨의 상태가 계속 호전될 경우 그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2주후 집으로 보낼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클라크씨는 수술후 피부색이 푸른색에서 분홍색으로 회복됐는데 그는 자신의 몸속에 인공심장이 퍼내는 피가 돌고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채이스·피터슨 유타대의학부장은 수술후 가장 위험한 기간은『앞으로 이틀』이라고 설명했다. 【솔트레이크시티=UPI】

人事異動

第一銀行 ▲뉴욕支店長兼뉴욕第一銀行開設準備委員長 李相大▲뉴욕支店調査役兼뉴욕第一銀行開設準備副委員長 申光湜▲國際部附屬外換業務室長 李世善 (4日字)

商業銀行 ▲聖水洞簡易預金取扱所開設準備委員長 李昇浩▲淸潭洞簡易預金取扱所開設準備委員長 趙元禧▲南峴洞簡易預金取扱所開設準備委員長·趙在完 (3日字)

記者의 눈 — 간접 課外

「課外」는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모양이다. 당국이 그렇게 엄하게 단속을 펴고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흔쾌히 그 追放에 동참하고있는데도 끊임없이 暗行을 하고있다.

갖가지 기발한 課外가 나와 관계기관과 숨바꼭질을 하더니 최근에는 中3학년생의 어머니들을 상대로한 간접課外(일명 루루선과외)란것까지 등장했다.

주부교실이라는 이름의 사설강습소에 나가 국정교과서로 中3영어를 배운뒤 집에돌아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변칙과외의 일종이다.

생활여유가 있고 고학력주부가많은 서울江南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있다는것이다.

경찰과 시교위등 관계기관도 3일밤 江南일대를대상으로 실태조사를편 모양이다. 현재로서는 이 간접課外가 있음이 공식 확인된것으로 밝혀졌는데 처벌이나 단속등 후속조치를 내릴지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다. 다만 이 간접課外가 말썽많은 「高3학부모」상대가 아님을 알게돼 다소 안심하고있는 눈치가 있다는것만이 확실하다.

「간접課外」— 이課外를놓고 4일 시중에는 찬반 양론이 나왔다. 반대론을 편 사람들은 이 과외가 엄연히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과외교습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지적,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형평상 어떤과외는 처벌하고 어떤 과외는 묵인할수없다는 원칙론이다.

옹호론자들은 주부들이 영어회화를 주로 배우다가 곁들여 배운 실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정도는 용인의 한계를 넘어선것이 아니니 그냥 두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고입연합고사의 경쟁률이 1.1대1도 안되니 中3상대 과외의 실익이 없지 않은게 아니냐는 단서까지 붙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 할수없는 하나의 숨겨진 현상이 있다. 그것도 주부교실 담당장자들의 이중성이다.

그들은 상대가 학부모일때는 中3영어가 자녀학습지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입에 침이 말랐다. 교실에나오는 30、40대 주부들의 60%가 그러한 교습목적을 가진 분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태도를 돌변했다. 『여행자유화와 88올림픽등에 대비, 주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것이 죄가됩니까』라고 강변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말을바꾸어 이 간접과외가 수준이 높아져 高3영어로 둔갑돼있을 경우 찬반양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반대론이 갑자기 우세해질것이리라. 언제부터 우리사회에는 범법을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생긴 것일까. 범법의 동기를 날카롭게 분석하는게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항상 목마르게 느끼고있는 페어플레이 정신의 不在를 설명하는 것에 통한다. 【方政俊기자】

政局往來

단숨에 걷힌 政治자금 權총장의 經濟단체장巡訪 협조요청이 주효

◆정치자금募金, 4일만에목표초과

지난1일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이 전화로 募金실적을 물었을때만해도 『단 한푼도 기탁된게 없다』던 中央選管委는 나흘만인 4일 『목표액 10억원을 돌파했다』고 정치자금 募金실적을 공개.

이같은 실적은 중앙選管委가 처음 공개모금을 위해 지난11월3일 募金광고를 낸데이어 12일에는 鄭寬溶사무처장이 경제4團體長을 방문했고 그래도 별 진척이 없자 22일 鄭처장이 3黨사무총장을 巡訪, 협조를요청해 民正黨의 權총장이 지난주말 경제단체장들을만나 독려한것이 주효한것같다는 풀이.

또 당초好應업체로 예상했던 50個社가 64개로 늘어난것도 단시일에 목표액돌파를 가능케한 요인이 됐다는것.

이번에 기탁된 10억원가운데는 新社黨과 民權黨에 각각 2천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의 指名기탁금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편 愼順範의원의 脫黨으로 원내의석이 없는 自由民族黨은 이번 기탁금배정에서 제외됐다.

◆特委위원 현지파견 3位축하키로

與黨측으로부터 政治議案처리의 事前보장을 얻기전에는 각常委활동에 참여할수없다는 주장때문에 3일하루 空轉한 국회올림픽特委(위원장 李世基의원)는 4일상오 전체회의대신 3黨간사접촉을갖고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3위를 차지한 한국팀을 격려하기위해 金湛의원(民正)을 뉴델리現地로 파견,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정.

『올림픽特委는 이축하메시지에서 『特委는 아시안게임에서 종합3위를 차지, 우리나라의 國威를 세계에 선양한데대해 온국민과 더불어 선전분투한 임원및 선수단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치하를 드린다』며 『오늘의 영광을 발판으로 더욱 분투노력하여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도 더욱 좋은결과를 얻도록 바란다』고 당부.

特委는 또 체육진흥과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결의.

◆10분간 단독要談끝에 辭表반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4일상오 중앙당사에서 辭表를 제출한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과 10여분간 단독 要談을 나눈뒤 辭表를 즉각반려.

柳총재는 이자리에서 『우리 黨은 이상하게도 적은일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일도 비슷하다』며 『없었던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柳총재와 요담을 마치고 나온 金의장은 『柳총재가 국회豫決委稅法小委를 연관시켜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발언들이 黨內에서 오간것은 잘못이었다는 말과 함께 辭意의 접수부터 완강히 거부하더라』고 傳言.

또 金의장은 『나의 辭意표명이후 그동기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앞으로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사퇴파동이 장기화될 경우 黨에 이로울것이 없다고 판단, 柳총재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국민 黨權경쟁 점차 加熱움직임

李萬燮부총재가 빠르면 금주중黨權도전의사를 밝힐 움직임을보이자 全黨대회일자를 내년1월23일 전후로 잡고있는 국민당은 서서히 黨權競爭에 突入할 움직임.

金鍾哲총재는 黨權도전 움직임이 일자 今週부터 직접 행동에나설 결심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으며 金총재의 측근인 尹錫民 부총재는 소속의원들을 5~10으로 나눠, 골프모임을 자주갖고 상호친선도모에 골몰하는가하면 李成一대변인 趙炳勳의원등도 동료의원과 부단한접촉을 갖고 金총재의 再選을위해 노력중.

반면 李부총재는 의원회관사무실과 국회총재실등지에서 소속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장기간 얘기를 나누고 협력을 요청하는가하면 金永生·金枓洙의원등 측근들을 동원, 지방代議員 확보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李鍾贊、金淸般、趙炳奎、李泰淳、金完泰의원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野黨협의회」도 금주중 한차례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進路를 모색할 예정인데 金총재측이 이협의회 움직임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있어 협의회 파문은 점차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創黨의 주역을 맡았던 金永光전사무총장도 4일 『金총재와 李부총재를 만나 居中調停을 해보겠다』고 밝혀 국민당 黨權경쟁은 점차 加熱될듯.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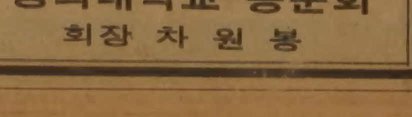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慶熙同門

송년파티 초대

금년도 송년파티가 손병헌 동문댁에서 있습니다.
동문 전원 부부동반하여 오셔서 즐기십시다.

일 시 : 1982년12월17일(금) 오후7시~오전7시
장 소 : 25 Bowshelm Crt. Mississauga ☎ 826-5118
※참고 — 맛있는 음식과 술과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924-5155
연락처 : ☎ 421-7438 669-5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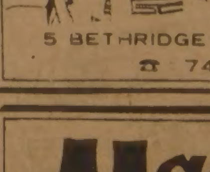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동문회
회장 차 원 봉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아침 한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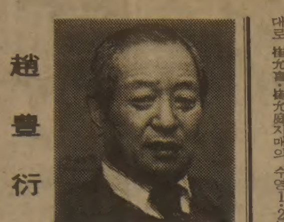
지난 2일밤 뉴스시간에 돌연『아시안게임의 마라톤에서 우리 金양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읍니다.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표되는대로 곧 전해드리겠읍니다』라는 특보가 나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만세를 부르고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나는 스포츠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지만 金양곤이란 이름은 들어본기억이 나지않았다. 앞서 국내에서 있었던 孫基禎배 마라톤에서 선두주자끼리 짜고 달리는 사상최초의 추태를 연출한데다 기록도 아주 저조했기에 이번 대회에서 마라톤만은 전혀기대를 걸지않았었다. 그런데 금메달이라니 기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격…마라톤 金메달

이날 金선수의 기록은 한국최고기록에 6분가량 뒤졌지만 24년전 東京대회에서 李昌薰선수가 우승한것을 마지막으로 침체에 빠졌던 한국마라톤을 아시아 스포츠계에 재인식시켰다. 동시에 한국마라톤의 재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이번대회의 가장 큰 경사였다.

비단 金양곤선수뿐아니라 모든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는 느낌이다. 축구등 몇몇 의외의 탈락이 있었지만 반대로 崔允喜·崔允庭자매의 수영1·2位



趙豊衍 <언론인>

석권이라든가 복싱, 사이클, 역도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왔다. 결국금28·은28·동37로 중공, 일본에 이어 종합성적 3위를 차지하였고, 대회초에 뒤를 바짝 따라붙던 북한과 홈팀인 인도를 멀리 따돌렸다.

북한이야기가 나왔으니말이지만 이번 대회에서처럼 남북분단의 비애를 절감한적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남북한은 아시안게임에서 여러차례 맞붙었지만 이번대회에서 새로운 느낌을 준것은 컬러TV의 효과때문인지 모른다.

흑백TV로 중계할때와는 달리 컬러TV는 분단의 실체를 원색으로 보여주었다. 동족의 젊은이들이 대조적인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싸웠다.

시상대의 위아래에 남북한선수가 서있는 장면은 崔允喜·允庭자매의 경우와 달리 슬프고도 안타까운 느낌만들었다. 만일 남북한이 단일팀으로나왔더라면얼마나 메달을 땄을까하는아쉬움이었다.

南北 합치면 金45개

이번 대회에서 남북한의 메달이 많아서인지 남북한단일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았다. 사실 남북한의 금메달을 합치면 45개로 2위인 일본과는 12개, 1위인 중공과도 16개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 메달도 분단으로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얻어낸 성과니 장하고도 안스러운 느낌이든다.

따라서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45개이상의 금메달을 따냈을것만같다. 밤위비대신에 사이클경기장을 만들어 대회 2개월을 앞두고 해외전지훈련을 갈 필요도없었을것이고 金梁坤선수같이 가난한 속에있는 재목들도 보다많이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생각은 당분간은 「공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민족의 전부적으로 우수한 체질과 후천적인 근면에 갈채를 보내는것으로 만족하고싶다. 그리고 또 있다.

경기가 끝난후나 시상대에서 주고받는 남북청년들의 악수였다. 신문기사를 보나 TV를 보나 양측선수간의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워진 것—그것은 이대회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 최대의 메달로 보아주고 싶다.

이 젊은이들에게 喝采를

뉴델리의 快報 서울서 열매맺게

과학적 산출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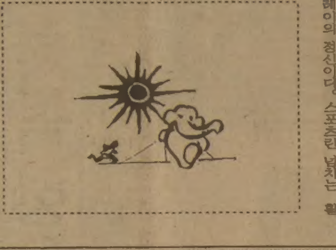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것은 출발전에 예상한 것이었고 그것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다. 말하자면 과학적 산출이 적중한 것이다. 무조건『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상대국의 전력을 또한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다. 이는 앞으로 우리 스포츠를 좀더 향상시킴에는 더이상없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오늘보다도 내일을위해 나관시되는 일이다. 오늘의 아시안게임보다도 내일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게임에서의 호성적을 기대하게 해준다.

우리는 앞으로 4년뒤, 그리고 6년뒤의 홈팀으로서 전력을 과학적으로 육성해야 될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는 그리 쉬운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언똑한 결과를 빚어낸다.

이번 마라톤에서도 북한의 소창식은 평소 2시간10분대를 마크했다고 하며, 일본의 미즈꾸보도 만만치 않은 기록을 가졌었다.

경기에서는 기온과 습도및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컨디션등이 경기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평소의 기록이 그대로 적중한다면 새삼스럽게 경기를 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경기가 말해주듯 한국대표단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있으며 이 투지가 86년과 88년에는 더센 기세로 연소되리라 기대해본다.



페어 플레이 精神

국가를 대표한이상 나라와 국민을 의식하지않을수 없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는것이다. 그것은 선수로 선발되어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국제대회에 임하는 바른 정신을 가다듬는데서 출발한다. 『체력은 국력이다』는 표어가 있지만, 10억에 달하는 중공에서 뽑힌선수와 오랜전통과 경험을 쌓은 1억2천만의 일본에서 뽑힌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긴다는것은 기적에 가까운일이다. 그러나 이에 기가 꺾이지않고 최선을 다하련다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부탁하고 싶은것은 페어·플레이의 정신이다. 스포츠란 넘치는 활력을 마음껏 발휘함에 본뜻이있다. 달리기·뛰기·걷어차기·쏘기·찌르기·짓누르기·때리기따위에서상대를두고휘두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엄격한 규칙의 테두리에서해야지 그 규칙을 벗어나면 「폭력」으로 화한다.

규칙에 준하여 마음껏 활력을 발산시킬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되는것이며, 규칙을 벗어날때는 커다란 추태가 되게마련이다.

이번대회에서 북한축구팀은 쿠웨이트와 싸워서 지자 7만관중이 보는앞에서 부정심판때문에졌다고 심판을구타했다. 흥분했을때에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너무 볼상사나운 광경인데 이광경을 보고있던 북한 임원마저 선수들을 말리는대신 폭행에 가세했다.

몰매를 맞은 심판은 병원신세를 져야 했고 결국 AFC(아시아축구연맹)는 북한의 3·4위전 출전을 불허함과 동시에 앞으로 2년동안 공식전 출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혹한 제재를 받고도 그들은 후회하는 기색이없어서 「아시아의 단합」을 내세운대회의 집행부를 아연실색케 했다.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빼면 그것은 처음부터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규칙을 엄수한 나라의하나인 한국 선수들과는 대조적인데, 그러면 관중들이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평가하느냐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고 코리안으로 묶어서 「민족성」을 놓고 평가하는 날에는 우리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이 가끔 경험하는일인데, 코리안이라 하면『남이냐? 북이냐?』하고 묻는 일은 예사이고, 어느 경우에는 남북한을 뭉뚱그려서 한민족으로서 평가하는 수가 많다. 이번 북한의 탈선은 예상외의 호성적으로 흥겨운 우리에게 일말의 끈끈한 불쾌감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망신」이된 셈이다.

메아리

加法

金聖佑 <編輯委員>

熱戰 16일간의 아시안 게임이 끝났다. 한국은 金메달 28개로 여유있는 3위를 차지했다. 바짝 추격해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북한은 4위이기는 하지만 金메달 17개로 멀찍이 뒤처졌다.

어떤 종류거나 경기는 항상 減算의 놀이다. 기록의 差, 메달數의 差에서 승부가 난다. 한국의 金메달數에서 북한의 金메달數를 뺀 差, 즉 11개나 되는 이 大差에 우리의 萬歲가 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은 어느틈엔가 버릇처럼 한가지 加算을 하고 있었다. 직장에서도 택시안에서도 南北韓이 메달數를 합하면 모두 몇개란는 계산들이었다. 28+17=45. 金메달 45개면 3위의 순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5위의 13개를 운동장 한바퀴쯤은 떨어뜨려 61개, 57개의 1, 2위와 함께 단연 선두그룹에 끼인다. 北韓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시작한 74년의 테헤란 대회에서는 4, 5위를 차지한 南北韓을 합하면 金31개로 3위인 中共의 33개를 육박할 수 있었고 78년의 방콕대회에서도 3, 4위를 南北韓의 합계 33개는 2위인 中共의 51개에서 과히 먼 것이 아니었다.

加算을 이왕시작한 김이니까 이번 뉴델리대회 결과를 가지고 종목별로 몇가지보태본다면 권투에서는 12체급중 南北韓이 10체급에서 우승했고 弓道는 4개부문중 3개, 射擊은 22개부문중 10개의 金메달을 차지했다.

이런 加算연습을 그저 부질없고만 할것인가.

北韓팀이 다른나라팀과 對戰할때 이왕이면 北韓을 응원하고 싶은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것이 加算의 정신이다. 뉴델리에서 시상대에 오른 北韓선수들이 태극기를 외면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것을보고 우리가 어떤 背信感같은 것을 느꼈던것도 이 加算정신이 冷笑당했기때문이다. 崔允庭과 崔允喜가 같은 종목에서 경쟁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姉妹이듯, 1, 2위를 차지한 영광스러운 姉妹이듯, 우리의 加算정신에는 그런 우애와 영광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다.

보태고싶은 마음이 있는한 언젠가는 정말 合算이 될날이 있을것이다. 메달수의 加算은 더 큰 合算의 조그만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보태보기로 한다면 어디 메달뿐이겠는가.

인구를 南北韓이 합하면 5천6백만으로 세계 제15위가된다. 80년대중에 6천만, 90년대에는 7천만, 서기 2000년에는 7천8백만이 될 전망이다. 단일민족국가의 인구로는 국가관리의 능력면에서 가장 알맞는 크기다.

국민총생산은 81년달러현재 南韓과 北韓이 4.6대1의 비율로 도합 7백58억달러다. 분단이 계속된다면 2000년에는 南北이 7대1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도합 3천35억 달러가 되리라는 전망이 國土統一院에서 나와있다. 그러나 1985년중에 통일이될 경우를 가정하면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이 4천8백억달러가 되어 1980년현재의 프랑스(4천7백억달러)나 영국(4천억달러)을 앞지르게된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81년현재 한국이 1천6백달러, 북한이 7백50달러지만 서기2000년의 통일 한국은 6천1백40달러가 될 것이다. 이것은 1973년의 미국수준, 1980년의 영국 수준이다.

지하자원은 대부분 北에 偏在되어 있으므로 南北을 합하면 年생산량이 鐵鑛石은 31억톤, 무연탄은 1백32억톤, 석탄은 1백35억톤이 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은 커질것이다.

현재 발전설비 용량은 南이 약2배로 北과 합하면 1천5백90만kw, 시멘트 생산능력은 南이 약 3배로 도합 3천1백60만톤이 된다.

스포츠의 메달은 보태면 많아지지만 보태서 적어지는것이 있다. 군사력이다. 현재 南北韓의 병력은 도합1백40만가량이다. 군사비 지출이 통틀어 年72억달러,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한국이6%인데 북한은 24%에 달한다. 南北이 통일이되면 이 軍備가 極小化된다. 加算해서 減量이되는 數學이다. 우리가 南北韓의 金메달數를 加算하는 것은 결국 이 減量을 위해서다.

새爭點「政治議案」
罷場의「체면치레」

與野、「개념規定」부터 서로 엇갈려

○…새해예산안이 前例없는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정기국회가 불과 10여일간의 會期를 남겨놓은 罷場직전의 막바지에서 야당이 제출한 「政治議案」이 뒤늦게 爭點으로 浮上되고있다.

政治議案은 작년부터 야당이 제출해놓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세를 취해온 야당의 主武器였고 이번 국회에서도 초반常委활동기간중 심의가되지않는다고 야당이 불만을표시하여 국회운영이 잠시나마 진통을 겪기도 했던 것이다.

초반국회에서 是非가 잠깐 있은뒤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문제의 정치의안이 종반에서 주요爭點으로 갑자기 飛火한 것은 야당에서 『우리는 주기만하고 얻은게 없다』는 주장을 뒤늦게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民韓黨의경우 「정치회복」을 이번국회의 목표로 내세웠던터에 뒤늦게 다소나마 「實」을 거둬야 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의안에 대해 與나野나 모두가 이번국회會期안에 무슨결론을 내릴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다.

民韓黨등 야당에서는 최소한 무슨 言質이라도 받아 체면치레라도 해야지 언제까지나 계류상태를 그대로 놓아둘수는 없지않느냐는것이다.

야당에서는 정치의안에 대한 무슨 약속이 없을경우 정부나 民正黨이 제출하는 法案도 심의할수 없다고 이미 몇개 案件을 볼모로 잡아두고있다.

民正黨이 商工委에 제출한 中小기업관계법안 5개,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개발법안등에 대해서는 심의할수없다고 制動을 걸고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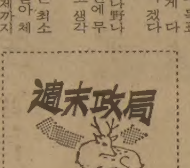
따라서 경우에따라서는 볼모로 잡힌 이들 몇개법안이 이번 會期를 지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는선에서 타결을볼 가능성도없지않다.

「政治議案」이란 한마디로 11代국회가 들어서기전 立法會議가 制·改正한「改革立法」중 정치관계법률을 중심으로야당이제출한 국회법, 언론기본법등 개정법안과 정치被규제자 解禁건의안등을 通稱하는것.

따라서 정치의안의 개념과 내용에대한 與野의 視角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어떤것이 정치의안의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대상에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있다.

民韓·국민당등 野黨측은 국회법、地自制法、언론기본법등 5~6개와 行刑法、刑訴法、農協·水協·畜協관련법등 10여개의 「準政治議案」을포함한 15~16개를 정치의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있는데 반해 民正黨은 地自制法、言基法、정치활동被규제자 解禁건의안등 불과 3~4개를 정치의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民正黨은 국회법은 국회운영에관한 절차법이기때문에 정치의안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李載灐대표위원은『지방자치제나 언론기본법은 관점에 따라 민주화에 영향을 주는 정치법안이라고 볼수있으나 국회법은 정치성이 있는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하고있다.



우선 정치의안의 개념규정에서부터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타결이 어려운것은 당연한 일이다.

"「解禁」、高度의 정치決斷사항"

○…우선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양측의 입장은 판이하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野黨의 개정안은 民韓黨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 및 국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 관한 법률안」등이있다.

당초 民韓黨의 개정안은 「오는83년12월31일 이전에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지방의회 구성의시기」를1、2년 늦추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할수있다는 次善案을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民正黨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것자체가 時期尙早라는것이다.

民正黨은 野黨이 처음 地自制문제를 들고나왔을때 지방재정自立度를 들어 難色을 표했지만 이제는 경제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상의 어려움、행정구역개편、선거풍토문제등을 반대주장에 포함시키고있다.

국회법에 대해 民韓黨은 그동안의 국회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비능률적인 측면 즉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드러났다면 이에대한 수정、보완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도 2백76명의 의원중 50명의원만이 예산심의에 참여하는것은 의회기능을 半減시킬수밖에 없다는주장이다. 개정안속에는 이밖에 상오회의도 환원、議案발의 정족수등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民正黨은지금까지 국회운영을 해본결과 제도상으로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수없었고 현행 국회법때문에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주장은설득력이 없다』고 李총무는 말하고 있다. 국회는 결국 운영을잘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국사를 논의할수 있기때문에 「運營의 妙」를 살리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民正黨은 앞으로운영해본뒤에 문제점이 드러날경우 그때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이에대해 『11代 국회 上半期를 결산하는 시점에 아직은 운영을 해본뒤 문제점이 도출되면 검토해보겠다는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기본법의 경우도 民韓黨은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치발전의 요체가 「妥協」와 「調整」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룰때 가능한 것인데도 현재의 언론은 대화를 알리면서도 그뒤의 조정이 없는 상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정치 不在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한마디로 이法이 立法會議에 제출됐을당시의 제안이유에서 한발도벗어나지 않은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李鍾贊총무는 『현행 言基法小委가 구성되어 있는만큼 小委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태도이다.

被규제자解禁의 경우 野黨은 소급입법의 부당성、국민화합등을 내세우고있지만 民正黨은 이같은 野黨의 주장이 하나의 「政治的의지」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이는눈치. 따라서 解禁은 헌법에 규정된 「高度의 정치적 결단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民正黨은 만일 이시점에서 被규제자들을 풀경우 야당이 더많은 피해를 입을것이기 때문에 內心으로는 바라지 않을것이라고 야당측의 집안사정을 들고있는데 한마디로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로 현재처럼 국회에계류시켜두자는 얘기다.

국민당은 거의 모든 정치의안에 대해 民韓黨과 거의 보조를 같이맞추고있지만 양곡가격 결정에 국회의同意를 얻도록하는 내용의 糧穀관리법개정안의 관철에 특히 열을 올리고 있다.

民韓黨은 정치의안攻勢의 명분으로 11代국회에서 발의한 총31개의 議案중 국회재무위관계 5개稅法案만이 처리됐을뿐 나머지 26개議案이 계류중이란 점을 들고 있다.

지난 2년동안 1백여건이상의 정부제출법안을 처리하면서도 의원 發議立法에 인색하냐는 것이다.

柳致松총재는 『여당측은우리의 정치의안처리에대해 마치 우리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었으니 施惠를 베풀어달라는양 誤導시키고있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정치의안처리는정치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봐야지 이를 마치 민한당의 黨益과 관련시키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林鍾基총무도 『정치의안을 예산안통과에대한 代價나 반대給付로 받을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여당이 무조건 통과不可를 되풀이할것이아니라 언제쯤 어떤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合議覺書나議政書를 만드는것도 하나의 타결방법이될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與"時期尙早다"審議회피
野 기회있을땐「主武器」로

民韓黨이 이시점에서 공세를 강화하는것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둔 집안사정과도有關한것같다.

黨權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게될 지도부의對與자세나 그동안의 實績에대한 평가가 「정치의안」과 관련되어 說往說來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이번국회의 목표를 「정치회복」으로 정했던 民韓黨은 정기국회기간동안 實名制와 資源관리법파동、稅法案과 예산삭감에 매달리느라 「政治議案」을 잊고 있었으나 잇단波動이 가라앉고 정기국회도 서서히 幕을내리자 뒤늦게 『政治회복은 어디로 갔느냐』는 黨內일부의 소리에 신경을 쓰지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자칫하면 정치의안은 民韓黨의 전당대회에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야당측의 強度는 더욱 거세어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쥔 여당이 여전한 鐵壁이고보니 이제는 남은국회기간동안 얼마만큼 『정치의안의 소리』를 높이고 또 막연한 약속등 명분을 건지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듯 싶다.

民正黨은 정치의안에 관한 한 『때가아니다』에 「不可」를 못박고 있으나 속으로는 고민도 없지않다.

野黨의 입장과 고충 모두 무시할 경우 이번예산국회에서 모처럼성숙된 협조무드가 흔들릴우려가 있는데다 만약 계속 거부할경우 民韓黨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공세에 따라서 政局이 어수선해질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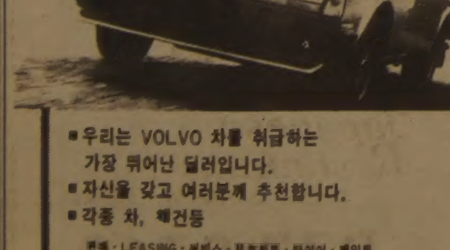
그래서 民正黨내에서는 비교적 정치성이 얇은 「政治議案」중에서 1~2개라도 들어주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있지만 『하나를 들어주면 또달라고 붙을 터지듯 아우성을 칠것이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與野간의 이러한政治攻防戰이 언제까지 갈지는 쉽게 예측할수 없지만 금년에 끝날것같지는 않고 民韓·국민당등 야당가의 全黨大會와 시기를 맞추어 다가오는 겨울 政局을 뜨겁게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李成俊·李以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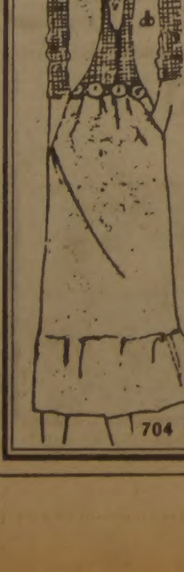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패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부품·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숙녀복 전당
Mirage Bout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드레스 종류
□선물용 부라우스
□롤세무 투피스(size 6.8.10)
□각종 자켓(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⑦

題字 原谷 金基昇

波瀾의 45년 生涯

明成皇后 閔妃

「引力」지닌 기품·강한 權力慾
日人 칼날아래 무참한 最後

무심히 발길이 지나치는 景福宮후정 鹿山은 韓末閔황후가 뿌려진 한이 맺혀있는 곳이다. 왕후는 1895년 乙未年 10월8일 새벽 침실에서 日人浪人들에의해 끌려나와 무참히 참살당한후 이 나지막한 동산에 끌어올려져 석유불로 화장됐던것.

초년과부의 외동딸로 자라 萬乘王妃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파란만장한 閔貞鎬(閔妃의 兒名)의 45세일기가 끝났던 곳. 그것은 한여인의 비극적인 終末이었던 동시에 대한의 終末을 알리는 弔歌이기도 했다.

지금 민속박물관을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明成皇后遭難之地』라고 새긴 조그마한 돌비석하나가 있고 그바로앞에 雲岳會(회장 이정숙)서 세운 銅版碑가 따로 하나 서 있다.

銅版碑는 뜻이있는『올드·레이디』들이 모여『明成皇后에 얽힌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아래 81년11월에 설립한것.

여성활동을 하던중 우연히 明成皇后시해사건에 뜻을 같이하게돼 모임을 갖게됐다는 雲岳會회원들은 지난해 銅版碑를 세운후 한달에 한번씩은 이 鹿山주위를 돌아보고있다.

상당한 자료도 찾아 보관하고있다는 민영복씨(前공군사관학교교수)는『명성황후에대한 갖은 악평은 日本人들이 조작내지 침소봉대해 낸것이며 이런이론을 바탕으로 朝鮮총독부관리들이 펴낸 朝鮮史논조가 오늘날까지 正論처럼 돼있는것은 통탄할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閔왕비시해사건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는 現代史정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閔왕비의 낙이 없었다는 곱지못한 모습이 표독했다는것들은 특히 악의적으로 날조되었다는 것.

『閔妃대신 독립국가의 공식시호인 明成皇后가 적절한 칭호』라고도 민영복씨는 말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꼭 우리것으로 이뤄졌다고는 말할수없어 조심할 필요가 있을것같다.

閔왕비사건은 두개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수있다.

하나는「大院君과 閔妃」로 압축되는 韓末 궁정의 권력투쟁관계에서이고 다른하나는 日本과 大韓과의 관계인 국제적차원.

일본인들이 휘둘러쓴 閔妃사건전말을 보면「大院君과 閔妃관계」의 측면에서만 이사건을 쫓아나갔고 결국 閔왕비는 大院君의 음모술수를 당하지못해 참살당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閔妃가 잘못했다」、「大院君이 심했다」등의 끝없는 논란은 이런 內燃論에 말려든것.

그보다는 淸日戰爭을 성공적으로 이끈 팽창주의자 日本이 韓半島천지를 내것이라고 결론낸후『왕이건 왕비건 해치우고 싶으면 해치운다』는 脈絡에서 閔妃弑害사건을 일으켰다고 볼수있다.

사건전후 조선왕궁을 드나들었던 西洋人들의 기술에는 侵略者의 손에 넘어가는 韓末비극이 소상히 기록돼있다.

영국탐험가 비숍의 기록. 비숍여사는 1894년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여 이듬해 2월 한국을 떠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왕비를 만날수 있었다.

그의 저서「한국과 그 이웃들」에의하면 왕비는 창백해 보일만큼 깨끗한 얼굴에 기품이 있는 女人. 4번방문하는 동안 비숍여사는『王妃는 시베리아철도의 건설비, 영국왕실의 운영제도, 영국평민의 관계진출 상황등 광범한 문제를 질문했다』면서 비록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王妃와의 인터뷰는 품위있는 높은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그 이웃들」에는 좀 아쉽게도 단 몇마디만 王妃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있다. 王妃는 영국빅토리아女王을 말하면서『빅토리아왕은 원하는것을 모두가졌읍니다. 위대함(Greatness)、富、權力. 女王의 아드님들과 손자들은 모두 왕과 황제가 됐으며 따님들은 왕후가 됐지 않았읍니까. 영광중에 있는 그분이 불쌍한 한국(Poor Korea)을 생각할수 있을까요. 女王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참으로 많이 했읍니다. 우리는 女王의 장수·번영을 빕니다』라고 왕비의 말을 직접인용했다.

영국문제였기 때문에 인용했을법도 하지만 이 대목을 말하는 閔왕비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그말만 따로 인용한식으로 적었는지도 모른다.

閔왕후는 쓰러져가는 小國의 中殿이었지만 위대함과 富와 권력을 갖고 싶어했으며 자신에대한 강한 욕망도 풍겼음직하다.

알렌의 일기에따르면 閔中殿은 폭이 컸다. 러시아공사부인 웨베르여사가 어느날 中殿을 만났을때 중전은 서슴없이 끼고있던 값비싼 玉반지를 빼주었다. 왕비는 사람을 끄는 引力같은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侍醫였던 언더우드女史는『閔왕비는 기울어져가는 韓末왕실의 한 기둥이라도 붙들어보려는 아름다운별이었다』고 서술하고있다. 閔왕비는 언더우드女史를 통해 부지런히 외국사정을 축하면서 以夷制夷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閔왕비를 4차례나 만났던 비숍여사는 1895년 2월 離韓했다가 이듬해 10월 일본 시모노세끼(下關)에서『왕비가 日人에의해 시해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길로 서울로 달려왔다.

그가 서울에 달려와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의 책에는 鹿山기슭에 만들어놓은「왕비화장터」의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해 놓고「王朝를 불태웠던 한 여인은 잠들다」라고만 적어놓고있다.

넓다란 石板으로 네모지게 만들어놓은 이「화장터」는 그림으로보아 지금 명성황후기념관이 세워지고 있는 장소쯤 되는곳에 서있었다.

지금 6、7坪이 될까말까하게 조그맣게 세워지는 기념관에는 왕비의 시해장면을 재현하는 그림을 그려붙일예정.

日人들은 왕비를 시해하려했던가.

당시 왕비시해를 직접 계획했고 이를 지휘했던 駐韓日本공사 미우라(三浦)는 왕비를「여우」라고 표현하고『20년의 앙은 갚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더이상의 구체적인 이유는 찾아볼수없다.

10월8일 사건당시 大院君은 日人들의 호위속에 기습선두대열에 서서 경복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어느 역사책처럼 아무리 權力을 탐한 大院君이라 할지라도 王妃시해음모를 알고는 무리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雲岳會의 민영복씨는『당초 日人들은 한국의 실력자인 大院君과 명성황후를 다같이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乙未사건당시 大院君은 野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왕비는 한 개인의 존재가 日本침략책에 그토록 중요한 방해요인이 됐다는데는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西江大 李光麟교수는 명성황후 시해는 명성황후 개인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日人들의 적나라한 야만성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들의 뜻대로라면 조선백성이 떠받들고있는 임금을 시해해 당장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고 싶었으나 좀 늦답을 낮춰 왕비를 시해하기에 이른것.

어쨌든 閔왕비의 시해상황은 세계왕조사에 그 예가 없는 처참한 것이었다.

외교적 신사답게 보이고 외교예의도 아는척했던 이노우에(井上)日本공사가 물러가고 미우라가 신임공사로 서울에 들어왔을때부터 분위기는 음산해져갔다.

헐버트의 기록에 의하면 왕비는 日人들이 어떤 흉악한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시위책임자인 미국인 제너럴 다이에게 경계강화를 명령하기도 했으며 그의 측근인 시위대장 洪啓薰은 왕비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閔비는 擧代비가 피난하지 않으면 안간다』면서 궁성에 계속 머물렀었고 다이는 여러차례 경비강화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궁성경비를 左右하던 日人패들이 이계획을 번번이 좌절시켰다.

비숍여사는 農商工部대신 鄭秉夏를 밤에자라고 쓰고있다. 왕비의 측에로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鄭秉夏는 日人앞잡이로 돌아섰으며 왕비가 그에게 궁성의 안전을 물을때마다『日人들의 음모설은 낭설』이라면서 끝까지 왕비를 속여 시해당하게 했다는것이다.

10월8일 새벽3시、미우라가 총지휘를 맡은 日人군인、낭인、싸움패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궁성훈련대들은 경복궁담장을 넘어 지금의 민속박물관자리에 있던 乾淸宮잠숙이에 뛰어들어 閔왕후를 시해했다.

마침 宮內大臣 李耕植은 왕비를 두팔로 막았다가 단번에 양쪽팔이 떨어져나갔으며 왕비도 이어 日人칼날에 쓰러졌다.

이때 조선훈련대원으로 현장에있던 玄參領의 목격담에 의하면 日人앞잡이들은 이경직의 양팔을 자른후 왕비가 칼로 베어졌으며 쓰러진 얼마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世子는 안전한가』라고 가느다랗게 말할때 日人검객이 가슴을 구둣발로 밟으면서 다시 칼을 여러번 꽂았다는 것이다.

잠시후 암살대들은 비단으로 묶은 여자시체하나를 널빤지에 얹어 鹿山으로 옮겨 석유를 뿌려 화장하기시작했는데 이 목격자의 말로는 널빤지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왕비는 살아있는듯했다는 것이다.

이 어둡고 슬픈 왕비살해사건은 뒤에 히로시마재판소에서 정식 기소돼『미우라의 책임아래 이뤄진 긴 음모라는것이 공식발표됐으나 정작 미우라와 33명의 피고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뒤에 초대朝鮮통감이 된 이또·히로부미(伊藤)는『왕비의 시해는 어리석은 짓이다. 왕비의 시신과 국제여론을 바꿀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육군중장이자 음흉한 수도자였던 미우라가『조선은 구둣발로 세차게 밟으면 밟을수록 좋다』라는 철학을 가진반면 이또는『그래도「급할것 없다」는 고차원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閔왕비가 시해됐던 1895년10월은 이미 淸日전쟁이 끝나 淸國이 日本에 대해『조선에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때였다. 10세이전에 春秋左傳을 술술 읽어넘었던 왕비가 이런 국제정세를 전혀 몰랐던가.

아마도 日人들의 잔인성을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왕비는 풍상에 넘어지는 古家와같이 비운을 마쳐야하는 운명을 타고났던 것인지도 모른다.

【鄭逸和기자】

◇閔왕비 시해장소에 모여『乙未사변의 역사는 바로 잡아져야한다』고 말하는 雲岳會 회원들。중앙은 경복궁관리소장 김문채씨。【李昌淳기자 찍음】

◇雲岳會가 세운 새 기념비。

◇경복궁 민속박물관 옆에 있는 李承晩 前대통령친필의 명성황후 조난의 史蹟碑。 <李昌淳기자찍음>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人品·역할 再評價 받아야

近代史의 비극「玉壺樓의 恨」을 되새겨본다

朴成壽
<국사편찬위편찬실장>

최근 텔리비전드라마에서 大院君과 閔妃가 경연하고있다. 생전에 두분이 그랬듯이 死後에도 여전히 경쟁하고있다. 한편이 높게 평가되면 다른 한편이 낮게 평가받는 상대적 평가이기때문에 作家나 역사가들에게는 특히 신경이 쓰이는 人物이라 할수있다. 최근 大院君이 높은 再評價를 받는바람에 閔妃는 부당(?)하게 격시당하는 수모를 겪고있다.

최근 閔妃가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돌아갔다는 보도가있었으나 그까짓것 칼이든 총이든 상관없다. 日帝가 남의나라 國母를 弑害하였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1919년 日帝가 高宗을 죽였으니 國母와 國父를 모조리 죽여 나라를 빼앗은 것이 日本이었다. 國母는 刺殺하고 國父는 毒殺하였다는 차이는 있으나 그들이 칼로 나라를 빼앗은데는 틀림이 없다.

閔妃弑害로 義兵戰爭이 시작되었고 高宗弑害로 3·1운동이 벌어졌으니 아무튼 두분의 죽음이 있었다고는하나 당시의 민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게 사실이다.

日帝 植民史觀에 따르면 大院君이나 閔妃나 모두 나쁜 인물로 취급된다. 우리 民族史學者들에게 있어서도 두분은 亡國의 책임자로 규탄 받는다. 閔妃弑害에 대한 朴殷植先生의 평가를 보면『슬프다!』의 한마디로 요약된다.

『당시 대원군은 그의 손자 埈鎔을 데리고 마포 공덕동에 있는 별장에 깊숙이 파묻혀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大門에 참새 잡는 그물을 치고 잡초가 길에 가득하였으며 낙엽이 뜰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이런 대원군을 꾀어서 閔妃弑害의 앞장을 서게 하였으니 저들의 꼭두각시가 된 셈이다.

『이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趙盾이 王을 주살한 것과 같은일이로다. 슬프나! 감정이 사람의 양심을 가린다더니 이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이렇게 朴殷植은 韓末政界의 권력 다툼을 개탄하면서 두 사람의 권력욕과 정권쟁탈전이 곧 亡國의 원인이라 보고있다.

「大韓帝國의 悲劇」을 쓴 매켄지에 따르면 민비는『작은 체구에 얼굴은 창백하고 깡마른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비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으며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다. 외모야 어떻든 그녀가 어떤 인물이며 우리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귀일된 의견이 없다. 역사가들이 해야할 일가운데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바로 민비의 평가 문제이다.

그러면 당대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민비를 평가하고 있었을까. 그 좋은 예로서 梅泉野錄을 쓴 黃玹을 들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비는 기지가 있고 영리하여 권모술수에 능하였으며 시아버지 대원군을 몰아내고 정사에 간여한지 20년만에 나라를 망치고만 여인』이라고 혹평하면서 마치『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을 외듯 하고 있다. 그리고 민비 시해 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비는 벽에 걸린 옷속에 숨었으나 일본인들이 잡아 끌어냈다. 민비는 연방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으나 일본인들은 칼로 내리쳤고 그 시체를 검은색 긴 치마에 싸서 鹿山밑 숲속에서 석유를 뿌려 불질렀고 타다 남은 몇 조각의 뼈는 바로 그 자리에 묻어 버렸다』

민비가 시해당한 현장은 玉壺樓였다. 이 옥호루의 비극은 곧 韓國近代史의 비극이기도 하였으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할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⑧

수지가 신음하듯 말했다.

『언니、제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들여다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서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지마세요』

오목이가 남의 귀를 의식한듯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새끼를 감싼 어미 짐승처럼 덤벼놓고 도전적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라니?』

『인재씨말예요』

『인재?』

두 여자는 똑같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인재의 이름에 흠칫 놀랐다. 수지도 오목이도 그 순간 크리스탈 등이 은은하고 낮게 드리운 행복한 식탁을 떠올렸다.

오목이의 얼굴이 놀처럼 상기했다. 얼마만인가? 인재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기는.

오목이는 그 이름이 십년동안에 조금도 녹슬거나 무디어지지않고 산뜻하게 자신의 가슴에 와 꽂히는 것에 적이 당황했다.

수지도 어쩔줄을 몰랐다.

십년이 넘게 불러본 일도 떠올린 일도 없는 이름이 새파랗게 날을 세우고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의 혼잡이야말로 그녀의 양심이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똑같이 인재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릴순 없었다. 인재의 이름은 수지에게도 오목이에게도 다만 하나의 찔림에 불과했다.

그래서 두 여자는 곧 평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오목이는 놀이진 하늘처럼 펑 비고 어두운 얼굴로 침착하게 말했다.

『그 애를 인재씨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마세요. 싫어요』

『그런적 없어. 그저 네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우리 그이 아들이에요. 우리 그이의 소중한 맏아들이에요』

오목이가 수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강경하게 대들었다.

『글쎄 누가 뭐래? 인재씨하고 그렇게 됐다는건 네가 스스로 고백한 얘기야. 근데 지금와서 마치 내가 그 얘기를 꾸미고 꿈긴 것처럼 나한테 대들면 어떡허니?』

『나는 저 아이를 얻기위해 엄청난 빚속에 넣고 고생했지만、우리 그이는 저 아이를 얻기위해 꼬박 십년동안이나 저 아이를 마음속에 넣고 힘겹게 부대꼈어요. 십년동안이나… 그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내를 낳을때、그이도 마침내 저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낳은 아기는 거들떠도 안보고 그이는 저 아이를 부둥켜안고 네가 우리집 맏상주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더군요. 저 아이는 처음부터 그이를 좋아했구요. 구박맞고 매 맞으면서도 그저 아빠만 따랐죠. 이젠 세상에 둘도없는 부자지간이에요. 그이도 저 아이도 이젠 행복해요. 그이가 중동 가서 돈벌이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저 아이때문이에요. 저 아이는 공부를 잘 하는데 후년엔 중학생이 되거든요. 점점 돈이 많이 들거 아녜요. 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출세시키기 위해 그이는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고생을 하든지 돈을 벌려는거예요. 저 아이는 그이 아들이에요. 인재란 사람하곤 아무상관도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 몰라요』

오목이는 마치 가파른 언덕길을 기어오르듯이 연방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르짖었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 오후2시 / 오후4시30분, 금요기도 밤9시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이시사기	279-4356 /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 척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한인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 12 : 30 수요오후 7 : 30 /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 : 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 금요오후 7 : 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현종	금요오후 7 : 30 /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45-496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 : 00 /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스포츠

「金28 銀28 銅37개」 史上최대의 戰果분석

한국일보 특집판

上昇氣流의 「스포츠한국」 「86년·88년青信號」 올렸다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總決算한다

體育部 記者放談

참석자
▲金在契 부장
▲安泰煥 차장
▲方錫崙 기자
▲金仁奎 〃
▲兪興根 〃

—金한 화제와 이변, 충격적인 사건들을 뒤로하고 이제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읍니다. 金德九선수의 죽음으로 暗어수선한 가운데 막을 올린 아시안게임 16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눈코뜰사이없이 바쁜 2주일이었지요.

—그간 몇차례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유니버시아드대회등 국제경기대회를 겪었지만 이번만큼 대형화제가 많았던때도 없었던것같습니다.

예상이상의 파이팅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유치국이라는 특수한 위치에다가 한국선수들이 예상밖의 파이팅으로 좋은성적을 올린 때문이 아닐까요.

—역시 아시아에선 한국의 주먹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12체급에서 금메달 7개,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요. 메달박스 구실을 톡톡히 한 셈이지요. 북한도 금메달 3개를 차지했으므로 남북한이 10개를 휩쓸었지요.

—남자농구가 중공을 물리치고 우승한것도 피날레를 장식한 쾌거였어요. 우승으로이끈 方烈감독은 더욱 감회가 깊었지요.

—이번대회서 한국선수단이 거둔 戰果는 한마디로 성공작입니다. 종합3위·남북대결서의 승리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에서 이런평가를 내린것이 아니고, 한국스포츠가 전체적으로 상승커브를 그리며 발전하고있다는 인상을 이번대회를통해 강하게 받았읍니다.

—좋은것은 좋고 나쁜것은 나쁘다고 해야지요. 한국선수단이 金메달 [illegible] 예상했을 때에는 비판적인 예상도 있었지만 크게 기대를 걸지않았던 종목서 예상밖의 선수들이 金메달을 추가, 3위목표를 이루었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쉬운 점, 반성할 내용도 없지않았읍니다.

大型話題 人魚자매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롬·뉴스는 金梁坤의 마라톤제패가 아닐까요?. 사이클 1백85㎞ 도로레이스서 핀치히터 朴世龍이 우승한것을 비롯하여 崔允喜·允庭자매의 3차례 金銀레이스, 테니스·복싱의 강세등 기억에 남을 화제가 꼬리를 이었지만 金梁坤의 마라톤우승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방송속보와 텔리타이프의 활자를 보면서도 오보가 아닌가 한때 의심할 정도 였으니까요. 스포츠 세계에서나 있을수있는 일입니다.

速報보면서도 믿지못한 "金梁坤우승"… 記錄나빠도 1등은 1등

—여론에 얻어 터지기만하던 한국마라톤이었으므로 귀를 의심한것은 당연하지요. 뉴델리 현지 우리선수단서도 깜짝 놀랐을게 틀림없어요. 이름도없고 기록도 시원치않았던 金梁坤이 육상의 꽃인 마라톤을제패한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金선수의 우승기록이 한국최고기록에 6분이나 뒤졌고, 출전선수가 적어서 대단한성과가 못된다는의견을보였는데 잘한것은 칭찬해주어야지 찬물을 끼얹는 평가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金선수의 마라톤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시안게임서 우승했다고 자기도취에 빠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곤란합니다. 외국 선수들의 명성에 겁먹지 않고 소신대로,꾸준히 페이스를 지켜나간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싶읍니다.

版圖바뀐 中共우승

—이번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중공이 일본의 대회9連覇를 저지하고 아시아스포츠 최강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지요.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굴욕이었지요. 모르긴해도 중공스포츠의 잠재력은 앞으로 더욱 신장될 조짐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어요.

—수영3冠王 崔允喜를 비롯하여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선수들도 적지 않았읍니다. 북한의 소길산은 사격종목에서 금메달 7개로 7冠王이 됐어요. 일본의 노장 무로후시(37)는 70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이번대회까지 투해머서 4차례 연속금메달을 차지한 공로로 李相佰盃를 특별수상 했고, 쿠웨이트의 세 여자선수가 승마 장애물경기서 남자를 제치고 1·2·3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됐읍니다. 레슬링 74㎏급에서 高鎭源을 누르고 우승한 후세인·모헤비형제가 레슬링서 金메달 2개를 차지하여 각광을 받았지요. 육상 여자 1백, 2백m서 금메달을 차지한 리디아·데·베가양(필리핀)도 인기가 대단했지요.

—한국선수단의 수훈갑을 꼽는다면 수영이 아닐까요? 특히 崔允喜·允庭자매의기여는 대단했지요. 당초 예상 못했던 성적이었어요.

—允喜·允庭자매가 메달을 따낸 사실자체도 큰이야기지만 아시아 수영왕국이라고 공인하는 日本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데 더큰 의의가 있어요.

—한국과 북한이 치열한 메달레이스를 펼치고 있을때의 금메달 한개는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어요. 允喜가 3번째 금을 따내 낙원아파트에 있는 允喜어머니를 만나러갔을때는 신바람이 납니다.

선물로 장미세송이

—사진부 金海雲차장은 允喜네 집에 가기전에 금메달 3개를 상징하는 붉은 장미꽃 세송이를 사갖고 찾아갔다지요.

—그래요. 金차장이 『따님이 너무나 큰일을 해내 고마와서 장미꽃을 사왔다』고 말하자 允喜어머니 李景先여사도 무척 감격해 하더군요.

—두 자매가 같은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서로 격려한 것은 현지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하더군요.

—금3·은4·동5개를 따낸 수영은 톡톡히 큰일을 해냈읍니다.

—수영에는 모두 34개의메달이 있지않읍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것 같습니다.

—수영외에도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종목이 많아요.

—테니스도 기대이상으로 선전했읍니다. 여자 단체·여자복식·남자복식·혼합복식이 금메달을 따냈고 은메달3개를 획득, 6개종목서 메달을 따냈읍니다. 남자복식서 우리 선수들끼리 결승전서 맞붙자 국내 테니스계 인사들도 깜짝 놀라는 눈치더군요.

잔디코트없이 優勝

잔디코트 하나없는 국내에서 연습한 우리선수들이 이같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게 아닙니다.

—사이클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읍니다. 특히 185㎞ 도로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것은 예상밖이었어요.

—4시간 30분48초07로 우승한 朴世龍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선수였어요. 朴이 우승했다는 기사가 들어왔을땐 착오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읍니다.

—사이클서 가장먼저 금메달을 확보한 1백㎞ 도로단체팀에게도 박수를 보내야겠지요. 벨로드롬 종목에서 금메달을 못따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종목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1개를 따낸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낸것도 따지고보면 사이클인들의 노력과 연구심이 대단했기때문입니다. 벨로드롬이 없는 현실을 탓하지만 않고 여의도 체육공원의 콘크리트 일주도로에서 연습한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낸것 같습니다.

탁구·사이클拍手갈

—탁구는 금을 따내지못했지만 나름대로 한국선수단에 큰 기여를 한 종목이지요.

—남북대결이 처음 벌어진 종목이 탁구아닙니까. 북한과의 대결에서 초반에 뒤지다가 역전승을 거두어 한국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요.

—그렇지만 세계최강 中共의 벽앞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新記錄복싱 全員메달 水泳·陸上앞길 보인다

—당초 역대 대표단 가운데 가장약하다고 평가받던복싱이 예상외의 강세를 보였읍니다. 기자들의 점괘가 틀렸지요.

—금메달7개를 포함하여12개 전체급에서 메달을 확보한것은 대단한 성적입니다.

—볼록비아와 핀란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경험을 쌓은것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것 같습니다. 투자한만큼 거둬들인다는 경제원칙이 스포츠에서도 성립한다는 것같아요.

—육상에서 빛이 뛰기 金鍾鎰·2백m 張在根의 금메달도 무척 값진 것입니다.

—너무 금메달만 갖고 얘기했는데 비록 은·동메달이지만 나름대로 큰 의미를 찾을수 있는 메달도 있읍니다.

값진 하키 銀메달

—여자하키의 은메달은 딴종목의 금메달이상가는 값진 수확이라고 평가할수 있읍니다.

—이제 팬들로부터 푸중을 들을 종목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회초리상은 단연 축구지요. 지난 78년 방콕아시안게임서 북한과 공동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축구가 우승은커녕 예선탈락이라는 치욕을 당할줄이야.

南北대결선 完勝、축구·레슬링 不振의 충격
日本콧대꺾은 中共힘刮目

—예선탈락도 문제지만 日本에 패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인것 같아요.

—하키결승전서 홈그라운드의 인도가 라이벌 파키스탄에 참패당해 초상집이 됐지요.

—이번 한국축구의 참패는 어떤 의미에서 예상되었던결과인것 같습니다. 축구협회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팬들도 경기장을 외면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신의있는 경기를 펼치겠읍니까. 협회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선수와 코칭스태프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지난3월 NHK컵대회서 남자배구는 세계2위 쿠바와 日本을 꺾은바 있읍니다. 그후 세계선수권대회서 기대에 못미치는성적을 올렸지만 이번아시안게임에는 당시 뛰지 못했던 姜斗泰·文湧冠선수등이 합류했기 때문에 中共·日本어느한팀에는 승리할수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배구의 두꺼운 壁

—姜·文두선수의 합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패인이 아닌가하는 생각도든군요.

—여자배구도 中共·日本의 장벽을 극복하지못했읍니다.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 귀국보고회에서 田好寬감독이『日本만은 꺾겠다』고 결의를보였는데 역시 역부족이었읍니다.

—한국 체조는 아시아의 탈권서도 점점 멀어지는것같습니다. 국내 체조는 78년후니어로 대표팀을 혁신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행정및 지도체제의 혁신없이는 발전이 어렵지않을까요.

—레슬링의 부진은 예상밖입니다.태릉선수촌서 연습할때 보니 상당히 활기가 있었읍니다. 많은 레슬링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과가 좋지않군요.

—아시아의 경량급 레슬링은 바로 세계수준입니다. 한국은 경량급에서 메달을따왔는데 역시 세계수준인 아시아권의 벽이 그만치 두텁습니다.

최대事故 北韓난동

—북한이 쿠웨이트와의 축구경승서 일으킨난동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불상사 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당했지요.

—궁도 시상대위에서 태극기를 외면하여 말썽을빚더니 축구장난동으로 이어졌읍니다.

—북한선수들의 모습이 78년 방콕대회때보다는 상당히 유연해졌다는것이 현지 취재팀의 평가였읍니다.

—대회 초반만해도 북한선수·임원들의 태도는 나긋나긋하고 외교적 제스처까지 쓰지 않았읍니까.

—우리 선수단과 얘기도하고 악수도 교환하더니 그웃음뒤에 패쇄성이 숨겨져 있었읍니다.

—아시안게임기간중 국내 각일간지 스포츠면은 거의비슷했지요. 거의 외신이나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이 보내온 기사에만의존하다보니 그럴수밖에 없었읍니다.

—무덥고, 물사정도 좋지않은 곳에서 고생도 많았지만 공동취재단의 활동은 「공동취재」란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지요.

—이번에日本요미우리신문의경우 7명의 특파원을 뉴델리에 파견했다는데 84년 LA올림픽 대회부터는 국내서도 단일 취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을까요. 86년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너무 한국팀 위주로만좇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인것같습니다.

—축구결승전은 쿠웨이트·이라크 아랍팀끼리가진것도 의외가 아닙니까.

메달集計에 혼선도

—이번에 가장 혼란을 준 것은 메달집계 아닌가 싶어요. AP·UPI·AFP등 외신마다 메달집계가 틀리고 대회본부의 집계마저 신빙성이 없었읍니다.

—메달집계에서만은 우리가 정확했다고 자부할만 합니다.

—모 정부기관에서는 아침마다 우리회사로 전화를걸어 우리가 집계한 메달수를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결론을 맺어 봅시다. 이번 아시안게임서 나타난 각종목의 결과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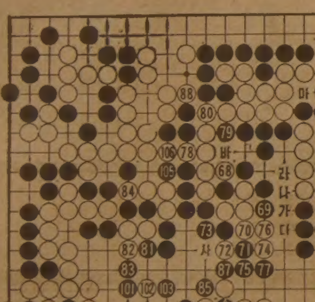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성적이 나빴던 원인은 무엇인가하는데 대한 철저한 비판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이제부터 86년 서울아시안게임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뉴델리 아시안게임 폐막은 동시에 또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金仁奎기자】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10譜 169~206 (각5시간·덤5집반)

白(4段)姜 勳〈1勝〉
黑(4段)李相澈〈1勝〉



白68로 따냈으나 아직도 이대마는 미생이다. 하지만 黑은 여기서 105자리를 두고싶은데 선수가 듣지 않는다.

李4단은 계속공격의 실마리를 잡지못하고 고심또고심. 점점 커가는 싸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이하며 黑69쪽에서 추격하여 이하77까지 외길을 달렸다.

이때 白78이 좋은수순. 결국 黑은79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래야 白「가」로 끊기더라도 黑「나」白「다」黑「라」白「마」黑「바」로 제자리에서 따로 살아갈수 있기 때문이다.

白勝은 決定的

말하자면 공격부대가 자신의「生計」를 서둘러야 할판이어서 黑은 얼이까다롭게만 되어간다.

우선 이쪽되고 보니 黑은 106을 둘수가 없다. 두면 白105때 88의 곳을 이어야하는데 여기서 白「사」를 당하면 중앙黑이 떨어져 버린다.

따라서 黑79로 중앙족의 활로를 확인해둘밖에 없었던 것이다.

黑81, 83을 선수하고 85, 87은 최후의 승부. 말할것도 없이 黑106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白88이 뻔해서 그토록 엄청났던 공방전은 일단락. 白은 최소한 반면으로 4집을 남기게 되고 말았다.

黑89이하의 끝내기도 黑은 승부차를 줄일수가 없어서 총248수때 돌을거두었는데 그장면은 총보로 미룬다. 90…▲ 【二段】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⑨

이때 아이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제각기 뜻 모를 환성을 지르며 거침없이 마루를 굴렀다.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다.

후덥지근하고 갇힌것처럼 답답한 안방으로 세 아이는 청신한 일진의 바람처럼 들이닥쳤다.

『배 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석이가 배점 맞은 시험지를 흔들 때처럼 무턱대고 기고만장해서 말했다.

『어메, 도련님들 왜 안하던 버릇을 해요? 씻지도 않고 뭘 먹어요 먹긴. 어머머 저 손 하고 머리에도 온통 흙 이잖아? 얼래 마루에 저 흙발자국 좀 봐』

따라들어온 식모애가 기겁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그녀의 곱지않은 눈초리는 그 모든 허물을 이미 일남이에게 뒤집어씌운 것 같았다. 일남이를 차갑게 노려보며 석이와 혁이만을 따로 두팔로 감쌌다.

목둘레가 몹시 늘어난 쉐터도, 무릎을 기운 골덴바지도 기장이 짧아 팔다리가 길어보일뿐더러 전체적으로 코믹해 보이는 일남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붙임성있게 웃으며 어른 아이를 번갈아 살폈다.

수지는 그 아이의 빛나는 눈과 높은 숨결을 보며 그아이가 방금 부딪친 새로운 환경과 친구때문에 가슴을 울렁이고 있다고 헤아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맑고 신선한 감명에 아름답게 남고싶어서 짐짓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엄마 이 집엔 나무 가장 귀위에도 전깃불이 달렸어』

일남이가 들뜬 소리로 말했다.

『우리 방에 갈래? 내가 더 근사한거 보여줄게』

석이가 그들 사이를 억지로 격리시킨 식모애의 팔안에서 몸을 비틀면서 말했다.

『그래, 뭐 좀 먹고…. 아배 고프단』

일남이는 식모애의 곱지않은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적나라하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먹을것 먼저 가져온. 씻기는건 나중에하고』

수지의 채근에 마지못해먹을것을 가지러나간 식모애가 한참만에 가져온것은 빵이나 우유가 아니라 구절판에 모양있게 조금씩 담은 호콩, 건포도, 초콜릿, 제리따위 배부르지않고 입맛만 버려놓은 것들이었다.

심통이 난 식모애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건 알면서도 수지는 나무라는 대신 저녁준비를 시켰다.

『서둘러라. 일남이하고일남이 엄마대접해 보내게. 반찬은 무우국이나 끓이고 불고기나 좀 넉넉하게하면 됐지 뭐. 그대신 빨리』

일남이는 구절판속의 것들을 바지주머니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혁이와 석이도 지체없이 덤덤아서 호콩이고 사탕이고 가리지않고 제주머니에 쑤셔넣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보다도 전혀 새로운 먹는 방법에 대한 맹목적인 찬탄과 추종으로 혁이와 석이는 적이 흥분하고 있었다.

『자아 느네 방으로 가란』

빈 구절판만 남자 일남이가 앞장 서서 이층으로 올라가고 아이들은 충실한 졸개처럼 즉각 뒤따랐다.

『맙소사,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네. 사람 되려면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고 우리 사모님 끔찍이도 까다롭게 굴어 싸시더니만』

식모애는 이번에도 입으로는 수지를 못마땅해하면서 눈은 깍아몽갤듯이 거만하게 오뚝이를 노려보고 나갔다.

海外토픽

볼리비아國民건배

★레이건, 브라질서 失手

브라질을 방문한 레이건 美대통령은 조아웅·피게이레도 브라질대통령이 베푼 연회에서 브라질국민을위해 축배를 들자고 말할것을 볼리비아국민을위해 축배를 들자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레이건대통령은 글라스를 높이들고 『피게이레도 대통령과 볼리비아국민을 위해 축배를들자고 말했다가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브라질 국민에게도. 볼리비아는 다음 방문국이니까』라고 덧붙였으나 볼리비아는 레이건대통령의 순방일정에 포함되어있지않아 2중의실수를 했다는것. 【브라질리아=EFE】

이軍장비大量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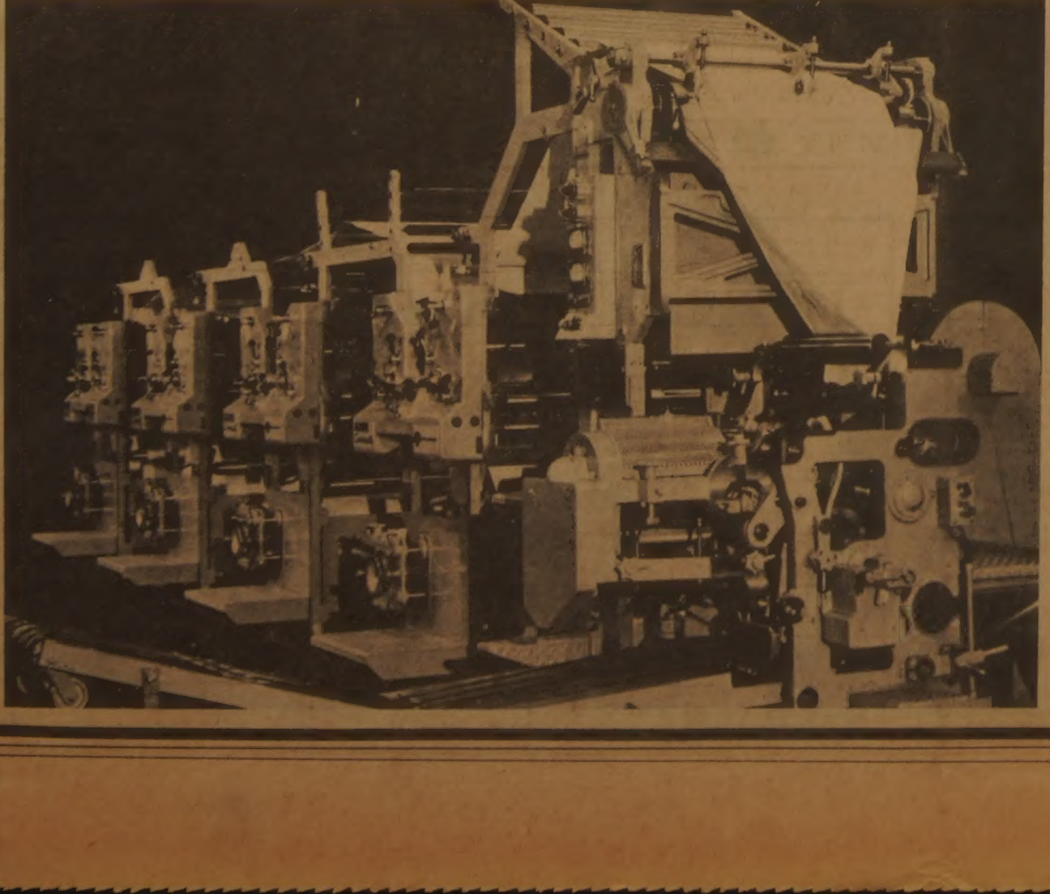
★자이레, 大統領경호위해

세세·세코·모부투 자이레대통령은 그의 대통령경호대를 강화하기위해 이스라엘로부터 8백만달러상당의 군사장비를 구입했다고 텔아비브의 일간 마리브지가 2일 보도.

이 신문은 그러나 모부투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신적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나의 경호대를 증강할 마음은없기때문에 시리아군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전사들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을 제공하겠다는 이스라엘측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한것으로 전언. 【텔아비브=AP】

不正은蓄妾이원인

필리핀관공서업무의 부정부패는 공무원들의 축첩에 주요원인이 있다고。국립 필리핀대학교에서 작성, 공공행정회의에 제출된 논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첩이나 정부들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공무원들의 업무집행과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있다는것. 이 논문은 또고급공무원의 여비서들이 상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이들을 뇌물수수를 위한 중계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고. 【마닐라=AFP】



We Will Print Your
NEWSPAPER
& AD.FLYERS
FOR
PREMIUM QUALITY
LOW PRICE
PROMPTNESS
PERSONAL SERVICE
GIVE US A CALL TODAY.

K.T.PUBLISHING
1025 DUPONT ST. TOR.
533-2361

調達廳 시설국장 拘束
공사계약 사례비명목 收賂

대검 중앙수사부는 4일 조달청 시설국장 權重과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權씨에게 뇌물을준 五洋기업주식회사 (부산釜山區釜田洞257의25)부사장 洪光秀씨(46)와 大宇개발 주식회사 상무 張哲煥씨 (46)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80년 12월중순께 五洋기업 부사장 洪씨로부터 釜山대학교 이학계열 강의실 신축공사 (2억원)의 계약사례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으며 81년 12월하순께부터는2차례에 걸쳐 大宇개발 상무 張씨로부터 철도청 大田공작창 확장공사 (4백억원) 계약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두공사는 정상적으로 계약된것이라고 밝히고 釜山大공사는 지난해 가을 이미끝났고 大田공장창공사는 현재 계속중이라고 설명했다.

木浦 어민용 免稅油빼내 2억착복
水協組合長등 10명구속

【木浦】 어민용 면세유류를 대량으로 빼돌려 팔아먹은 木浦市 수협간부등 직원9명과 상인 1명등 10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光州지검木浦지청 金成浩검사는 4일 木浦市수협조합장 張達相씨(60) 전무 李濟亮씨(48) 신용담당상무 金相仁씨(43) 유류공급소장 朴光在씨(41) 사업과장 郭光鎬씨(40)등 9명을 업무상횡령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木浦市 榮海洞 창명상회사무장 金貞煥씨(34)를 뇌물공여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서로짜고 지난80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모두 2백46차례에걸쳐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용 경유 7천여 드럼을 빼돌려 판 2억7천6백여만원을 나누어쓴 혐의다.

이들은 사업과장 郭씨와 유류공급소장 朴씨,상인 金씨가 주동이돼 자신들만이 아는 메모지나 티킷을 이용,기름을 시중에 빼돌려 판뒤 돈을 나누어써왔으며 조합장 전무 상무등 간부직원들은 이들로부터 매달 10~50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5백여만원씩을 상납 받았다는 것이다.【貞】

돈준 2명立件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교육憲章선포 14돌
3천7백16명에 훈장·포장·표창

국민교육헌장선포 제14주년 기념식이 4일 상오10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李奎浩문교부장관, 鄭炳宗 국회문공위원장, 헌장기초위원, 한국일보 張康在 회장등 수상자 대표, 교직자대표등 3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서울시교위 具本錫교육감등 15명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힘써온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고, 91명이 동백장, 83명이 목련장, 65명이 국민포장을 각각수배받았다. ★수훈자명단10면

또 이날 89명이 대통령표창, 81명이 국무총리 표창등 3천7백16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교육자대상」을 제정, 교원확립과 교원사기진작에 기여한 한국일보社 張康在회장과 京鄕新聞社 鄭九鎬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李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교육을 이끄는 우리 교육자는 모든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안에 아직도 고질적으로 도사리고있는 문제점을 말끔히 가려내 추방하고 어떤어려움에 부딪쳐서도 이를 극복, 겨레의 스승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아래 우리나라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위해서 자신의삶을 바칠것을 다짐하자』고 강조했다.

◇국민교육헌장선포 제14주년 기념식에서 李奎浩문교부 장관이 본사 張康在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달아주고있다。중앙은 京鄕新聞 鄭九鎬사장。

防衛소집대기 1년씩 단축
병역미필자 海外旅行 완화

병무청은 오는 83년1월1일부터 방위소집 대상자의 소집대기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공군출신 예비군의 검열점호 폐지,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완화, 병무민원서류 간소화등을 내용으로한 13개항의 병무행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千珠元병무청장이 발표한 개선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징·소집대상자편의증진

보충역으로 분류된 자원가운데 방위소집대기기간을 중졸(중퇴포함) 이상학력자는 현행징병검사연도로부터 4년을 3년으로, 국졸자는 2년에서 1년으로 각각1년씩 단축하고 이기간이 지나면 소집면제, 예비역에 편입한다.

또 해·공군출신예비군에대해 실시해오던 검열점호를 폐지하고 예비군훈련때의 신상파악으로 대신토록했다.

또 지금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장정은 본적지에모여 집단입영했으나 내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개별입영을 허용하며 특히 論山훈련소에 입영하는 충남·북、전북지역장정은 모두 개별입영토록한다.

◇병역의무자해외여행완화

유학목적의 출국허가에서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징병검사대상자와 입영예정자、2월에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9월에 해외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 그리고 해외의 대학및 대학원에 입시목적으로 출국코자하는 사람은 모두 불허했으나 앞으로는 제한연령(대학24、대학원26세) 내에 학업을마치고 귀국하여 실역복무가 가능한사람은 모두출국을 허가토록 했다。예비군의 출국신고대상연령을 현행 35세이하에서 30세이하로 낮추었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같은 해외여행 규제완화와함께 허가기간내의 미귀국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지금까지 미귀국자의 보증인에대해 최고 5백만원까지 물리던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핸들 博士」
27년 無事故운전 姜成俊씨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환해 성실한 서민의 삶이 돋보인다.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는 27년의 애환이 깊이 새겨져있다.

3일 27년 무사고운전사로 표창을받은 姜成俊씨(46·사진·전남潭陽郡潭陽邑紙砧里)는 장관이 내민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를정도였으나 빨강 노랑 파랑의 교통신호등을 달고 날아설때 무너진듯한 박수소리에 자신의 무사고 경력이 대단한것임을 겨우 알았다.

그는 전남谷城에서 소작농의 3대독자로 태어나 8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국민학교를 나온뒤 全南화물 潭陽출장소 트럭조수로 시작, 19세때 면허를 땄다. 운전을 배운답시고 트럭꽁무니를 따라다니면 홀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말렸다.

그러나 먼지를 풀풀 날리며 들판을 가로지르는 운전의 매력은 어린시절 그의 꿈이었으며 그것이 천직이돼버렸다. 조수시절에는 운전을 못한다고 운전사들에게 얻어맞고 화물위에서 서럽게 운적도 여러번이었다.

정확히 27년5개월동안 단한번의 사고도 내지않은 그는 조수 1명을 거느리고 전국을 안가본 곳이 없지만 가족동반으로 그 흔한 바캉스한번 떠나지를 못했다. 어쩌다 명절을 지나쳐야 할때는 몰래 가족을 실어다주고 오는길에 태워오기도했다.

"秘訣은 車를 가족처럼 아끼는것뿐…"

그래서 상으로받은 노란 개인택시와 사업면허증 국민주택분양우선권및 상금 1백만원을 두고도 불평없이 내조해온 아내 金順子씨(46)와 3남2녀의 공을 내세운다.

무사고 운전사일뿐 아니라 동료가 사고를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뒤를 봐주고 사고원인을 나름대로 분석, 회사에서는 자동차통으로 통한다. 휴일이면 하루종일 정비작업을 하는등 트럭을 가족처럼 사랑하기에 그렇게된 것이지만 이제 택시를 생각하면 섭섭하고도 걱정스럽다고 한다.

그가 들려주는 무사고의 비결은 정비철저, 규정속도준수, 양보운전등 평범하기 그지없다. 『내차를내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하나면 된다』는게 그의 지론인만큼 택시에서도 그는 무사고운전사가 되게 분명하다.

무턱대고 빨리만 몰아대는 골재트럭운전사나 쉽게 면허를 따내려는 사람들이 한번 만나보아야 할사람이다. 【韓基奉기자】

"今丹아… 지금 어디에…"

뉴델리하늘의 太極旗물결을 보았느냐

18년전 東京올림픽때 눈물의 南北 부녀상봉「15분」… 辛文濬씨

◇빛바랜 사진만… 부녀상봉때의 빛바랜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18년전 그날」을 얘기하는 辛文濬씨。

그때 그사람

북한의 세계적 스프린터였던 辛今丹선수의 아버지 辛文濬씨(66·서울麻浦區城山洞234의20)。辛씨는 최근 북한과의 대결에서 이긴 승전보가 印度의 뉴델리에서 연일 연일 날아들었던 요즈음 30여년동안 멍들어온 마음의 상처가 도졌다.

북한선수들을 각종목에서 누르고 우리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가슴뿌듯한 승전보지만 그때마다 辛씨는 꼭18년전 東京올림픽때 딸 今丹이를 겨우 15분동안 만났던 기억이 되살아나 목이멘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한몸에 지녔던 辛씨는 印度대회때혹시나 딸이 북한 선수단의 임원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영영 소식이 없어 섭섭했다면서 오는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때 딸을 만나볼 수 있기를 한가닥 기대한다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辛씨부녀가 상봉했던것은 1964년10월9일 東京올림픽때로 생이별 15년만이었지만 극적인 상봉은 단15분으로 끝났다.

『금단아!』 『아버지!』 부녀는 15년동안을 두고 그리던 피맺힌 혈육의 정을 토하듯 부르짖기만 했을뿐, 정작 가슴에 철철 넘쳐나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더구나 상봉의 장소가 조총련의 본거지 朝鮮會館이었고 조련계동포 1천여명이 지켜보고 있어 辛선수는 가슴에 좋았던말을 한마디도 하지못한채 잠시후 조총련 행동대원들에의해 끌려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앉아 고향 북녘땅에 두고온 식구들의 안부랑 고향소식을 물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고싶었던 부정(父情)은 北에서 그어놓은「東京의 38선」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 애절한 해후의 소식은 수백만 실향민들은 물론 온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워놓았었다.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있을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귓엣말로 두번이나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했지요. 그애는 따라나서고싶은 눈치였으나 끝내 용기를 내지못하고 말았어요』

18년전의 그날을 그는 어제일처럼 소상하게 기억해내고 있었다.

"86년亞洲경기·88올림픽때 서울서 만나게나될지"

『죽기전에 금단이를 다시 볼날은 통일뿐인것 같습니다』

함경북도 利原출신인 辛씨는 6·25때 반동으로 몰려 식솔을 버려두고 단신 월남한 실향민。통일의 비원이 남달리 진한것도 공산주의에대한 사무친 원한때문이리라.

辛씨는 東京에서 딸과 감격의 해후후 눈물을 흘리며 귀국했는데 그뒤 재회를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딸과의 東京상봉당시 세브란스병원의 수위로일하던 辛씨는 지난70년 정년퇴직한뒤 개인회사 경비로 떠돌다 76년1월 지금일하고있는 서울南山1호터널 수로원(修路員)으로 취직했다. 터널입구를 청소하고 잔돈을 바꾸어주는등의 잡무가 그의일과다. 한달월급은12만원남짓. 그돈으로 城山洞 조그마한 한옥에서 부인 秦点淑씨(50)및 2남2녀와 함께 어렵게 살고있다.

辛씨의 城山洞집 방에는 빛바랜 東京의 상봉때사진과 올림픽이 끝난뒤 韓福男씨가 작사작곡, 黃貞心씨가 노래했던 「눈물의 今丹이」레코드 한장이 고이 간직돼있다.

『그때 노래가사에 나오던 「아바이」란 사투리가 한때 내별명처럼 불려졌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바이」란 친척어른이나 나이든 웃사람을 부를때 쓰는 함경도사투리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고 辛씨는 말했다.

辛씨는 이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땐 그때 혹 한번 더 만날수 있지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읍니다만 만의하나 그들이 선수단을 보낸다해도 이제 44살이된 금단이가 또 올리도 없고 이용할대로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들인것을 내가 잘 아는지라 주위에서 가끔 희망을 가지라해도 저는 귀밖으로 들어요』

아시안게임이 끝나는날 辛씨의 얼굴엔 주름살이 하나 더 는것 같아보였다. 【薛熙灌기자】

오늘부터 다시寒波

그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휴일인 5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워졌다.

중앙기상대는 4일 하오부터 서울등 중부지방에 내리기시작한 초겨울비가 밤사이 눈발로 바뀌면서 5일새벽까지 계속되다가 차차 개겠으로 내다보고 5일의 최저기온이 영하2도(서울)에서 영하5도(春川)로 떨어질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 6일에는 더 추워져 중부지방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6~8도를 기록하겠다고 내다봤다.

主婦敎室 간접課外 학원代表등을 조사

서울시경은 대도시 학원의 주부교실을 이용한 간접과외에대한 수사에 나서 4일 서울江南區 盤浦쇼핑타운 M학원대표 韓모씨(38)등 학원대표3명과 주부 金모씨(36)등 수강생10여명을 소환, 강의방법·수강이유·가족구성관계등을 중점적으로 캐고있다.

한편 서울시교위는 이날각 교육구청에 이같은유형의 신종변태과외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金得九장학회」설립 운동
美LA사교계 페드로사女史주도

【로스앤젤레스支社】故金得九선수를 기념하기위한 장학회설립운동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교계명사 알마·페드로사여사와 언론계에서 활약하고있는 그의 두딸에의해 추진되고있다.

페드로사여사는 4일(한국시간) 자신이 프러듀서로 일하고있는 사교클럽 캘리포니아 타운미팅 주관으로 신문、방송、영화계의 후원을 얻어 내년 2월19일 로스앤젤레스 프레스클럽에서「金선수 기념장학회」 설립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달중순부터 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로사 여사는 이같은사업에 현재 NBC계열 KFWB라디오방송뉴스 캐스터로 활약중인 시실리·페드로사와 ABC·TV 방송기자인 이네즈·페드로사등 두딸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기념장학회설립 파티에 가능하면 金선수의 어머니와 약혼녀를 초청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強盜살인 추정
大邱母子피살사건

【大邱】大邱모자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일 숨진 金수자씨(40·여)가 소지하고있던 것으로 보이는 현금90만원과 금목걸이 5돈쭝1개、쌍가락지 3·5돈쭝1개、금반지 1·5돈쭝1개등 모두 1백35만원상당의 금품이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건을 강도살인사건으로 단정、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貞】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관

ㅁ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맥주 1병 · 1불25전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급구· 여자 웨이츄레스와 주방헬퍼 구합니다.

아시아 스포츠 制覇한 中共… 그 底力을 벗긴다

"한국에 큰 빚졌다"

수영등 日獨走막아주자 優勝길 넓어져

金61개 휩쓸며 頂上우뚝 「아시아의 病者」 汚名씻어

【뉴델리 北京UPI=聯】한때 『아시아스포츠의 病者』라고 불렸던 中共이 이번 제9회 뉴델리아시아대회에서 9연패를노리던 日本을제치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아시아스포츠의 最强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中共은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金메달61개를따내 57개의 金메달을획득한 日本을누르고 처음으로 아시아스포츠의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북한의 끈질긴추격을뿌리치고金메달28개로종합3위를차지, 기염을토했다.

스포츠를 등한시하여 한때 『아시아스포츠의 病者』라고 불려진 中共은 74년 제7회 테헤란대회에 처녀출전, 日本·이란에 이어 3위에머물렀으나 4년뒤 제8회 방콕아시안게임에서는 준우승을차지,실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中共은 방콕대회때는 金메달경쟁에서 日本에 무려 19개나 뒤쳐졌으며 메달총수에서는 27개나 모자랐다.

臥薪嘗膽하면서 아시아스포츠의 제패를 꿈꾸어오던中共은 다시 4년뒤인 이번 뉴델리대회에서 마침내 日本의 추격을 뿌리치고 첫우승을차지, 아시아의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中共의 아시아스포츠 최강국으로의 부상은 마치 흐르는 물과같다.

中共이 이번 뉴델리대회에서 강적 日本을 제치고 감격의 첫우승을 차지할수 있었던것은 한국의덕분이라 할수 있다.

中共은 이번대회를 우승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한국에 빚을졌다.

오는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을주최할 한국은 금메달28개로 4년전 방콕대회(金메달18개)때보다는 훨씬 향상된 경기를 펼쳐보여주었다. 한국은 또 마지막날 복싱결승에서 비록 두체급에서 북한에 지긴했으나 7체급을 휩쓸면서 복싱강국으로서의 체면을 살렸다.

한국 선수단은 즐거운마음으로 귀국할수있을것이나 북한선수단은 우울한 심정으로 고뉴델리를 떠나게 될것이다.

북한이 이번대회의 체조·사격·육상부문에서 보여준 기량은 지난 11월30일 축구준결승 對쿠웨이트戰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품고 泰國주심을 집단폭행한 사건으로 먹칠이 되었다.

이사건으로 북한축구팀은 아시아축구연맹(AFC)로부터 앞으로 2년간 모든국제대회 출전금지라는 징벌을 받았다.

中共은 8회 방콕대회때 우세를 보였던 체조·사격·탁구·배드민턴·다이빙등 종목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을뿐 아니라 수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개의 金메달을 따냈고 신설된 조정종목에서도 4개의 金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中共이 이번대회에서 우승할수 있었던데는 이같은요인이 원동력이되었지만 한국의 기여도 빼놓을수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3개의 金메달을차지한 14세의 崔允喜등의 선수들이 수영에서 日本의독주를 견제, 中共이우승으로향할수 있는 길을넓혀주었다.

한국은 이번 뉴델리대회서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훨씬향상된경기를 보여주었으며 남자농구에서는 中共을 85-84로 꺾고 극적으로 승리, 아시아농구의 정상에 복귀했다.

한편 中共의 스포츠저널紙는 뉴델리대회 폐막을 하루앞둔 3일 이번대회에서의 中共의 우승은 中共이 이제 세계의 스포츠강국들의 서열에 오를수있음을 보여준것이라고 보도.

이신문은 『이제 中共은 스포츠세계에서 더이상 아시아의 病者가 아니라 아시아의 지도적 국가이며 국제대회에서도 巨步를 내딛게될것』이라면서 이번뉴델리대회 우승은『역사적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신문은 中共선수들과 일류급 국제선수들간에는 아직 『수준차』가 있지만 이번대회우승은 우리가 아시아뿐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1등스포츠국이 될수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

◇中·日 金메달 비교

종 목 (총계)	중공	일본
육 상 (40)	13	14
수 영 (34)	7	21
체 조 (14)	12	2
궁 도 (4)	0	1
사 격 (22)	8	3
농 구 (2)	1	0
배 구 (2)	1	1
핸 드 볼 (1)	1	0
탁 구 (7)	6	1
테 니 스 (7)	0	1
배드민턴 (7)	4	0
레 슬 링 (10)	0	4
역 도 (10)	4	2
골 프 (2)	0	1
조 정 (4)	4	0
요 트 (4)	0	1
사 이 클 (7)	0	5
계 (196)	61	57

「숨은才質찾기」에 28년이나

우승의産室은 여가體育學校

3만3천校에 학생만 22만

1년에 2백60억원 물쓰듯

【北京3日AP聯=特】중공이 아시안게임서 일본의독주를 막고 우승을 차지하기 까지는 전국에 산재한 3만3천개의 「여가 체육학교」가 큰 역할을 했다.

중공의 관영 新華社통신은 중공의 우승이 결정된후 『이 여가체육 학교들이 어린학생들의 스포츠 재질을 찾아내고 훈련시킴으로써 오늘날세계적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찬사를 보냈다.

3만3천개의 이 체육학교에는 1만3천명의 코치와 22만명의 학생들이 소속돼있으며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 학생들에게 스포츠 훈련을시킨다.

중공당국은 1955년부터 시작된 이 체육학교의 시설 건립과 장비, 의류 구입비로 지난해 7천만元(약2백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훈련이나 체육학교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무료이며 학생들은 月6元(2천2백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가다니는 정규학교 체육교사의추천을 받아 입학하는데 일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기도 한다.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있는 중공여자배구선수들도 12명중 10명은 이 여자체육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체육학교에서는 배구외에 육상, 수영, 농구, 축구, 핸드볼, 탁구, 체조, 역도, 배드민턴, 테니스, 펜싱, 사이클등을 가르친다.

일부학생들은 도중에 흥미를잃거나또는학업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탈락되기로한다.

중공의 스포츠뉴스지는 10억인구의 중공이 앞으로 아시아뿐아니라 세계의 스포츠강국으로 등장할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메달획득현황

金메달(28개)

◇궁 도
▲남단체 3,728점
▲여단체 3,853점
◇사 격
▲소구경3자세=尹德夏 1,144점
▲소구경스탠더드개인=尹德夏 571점
▲스탠더드권총개인=朴鍾吉 565점
◇사 이 클
▲100㎞도로단체 2시간10분39초04
▲185㎞도로개인=朴世龍 4시간30분48초07
◇수 영
▲여배영200m=崔允喜 2분21초96
▲여배영100m=崔允喜 1분6초39
▲여개인혼영200m=崔允喜 2분24초32
◇육 상
▲남넓이뛰기=金鍾鎰 7m94
▲남200m=張在根 20초89
▲마라톤=金粲坤 2시간22분21초
◇테 니 스
▲여 단체
▲남 복식=金春浩·이우룡
▲여 복식=金男淑·申順浩
▲혼합복식=金春浩·申順浩
◇역 도
▲100㎏급=安智榮 357·5㎏
▲110㎏급=安孝爵 350㎏
◇배드민턴
▲여 복식=黃善愛·姜幸淑
◇복 싱
▲L플라이급=許永模
▲밴텀급=文成吉
▲L웰터급=金東吉
▲웰터급=鄭銘範
▲L·미들급=李海正
▲미들급=李南儀
▲L·헤비급=洪起鎬
◇남자농구
한국85—84중공

銀메달(28개)

◇궁 도
▲남개인=金永雲 1,275점
▲여개인=金珍浩 1,294점
◇수 영
▲여배영200m=崔允庭 2분22초85
▲남접영200m=方駿榮 2분6초82
▲여배영100m=崔允庭 1분6초98
▲여개인혼영200m=崔允庭 2분25초45
◇사 격
▲소구경스탠더드단체 2,254점
▲소구경3자세단체 4,534점
▲속사권총=朴鍾吉 592점
◇탁 구
▲여단체
▲남복식=金 浣 金琦澤
◇골 프
▲단체 892타
◇하 키
▲여자단체
◇사 이 클
▲1천m 개인독주=金永洙 1분10초78
▲4천m단체추발 5분[illegible]초89
▲4천m개인추발=[illegible] 5분9초73
◇육 상
▲남 800m=金福柱 1분47초55
▲남 투창=[illegible]73m62
▲남 100m=張在根 10초72
◇테 니 스
▲남 복식=全瑛大·宋東煜
▲여 단식=金壽玉
▲남 단식=金春浩
◇레 슬 링
▲62㎏급=李正根
▲74㎏급=高鍾源
◇배드민턴
▲여복식
◇농 구
▲여 자
◇복 싱
▲페더급=朴基哲
▲라이트급=權鉉珪

銅메달(3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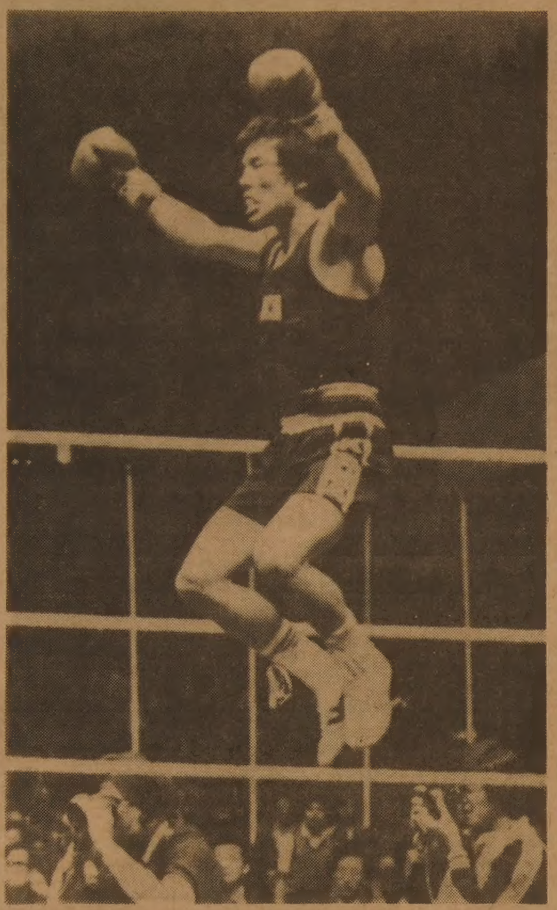
◇체 조
▲여 뜀틀=李貞熙 19·250점
▲남뜀틀=[illegible]19·200점
◇탁 구
▲남단체
▲여단식=尹璟美
▲여단식=梁英子
▲혼합복식=尹吉重·尹璟美
◇조 정
▲有舵포어
▲無舵페어
◇사 격
▲스탠더드권총단체 2,234점
▲소구경복사단체 2,356점
▲속사권총단체 2,326점
▲스키트개인=金基元 188점
◇역 도
▲90㎏급=金喆鉉 332·5㎏
◇궁 도
▲여개인=金美英 1,283점
◇수 영
▲여개인혼영 400m=李始恩 5분8초26
▲여접영 200m=金昑希 2분21초79
▲여자유형400m 李始恩 4분34초02
▲여자유형 800 m=李始恩 9분20초92
▲여혼계영 400m= 4분34초05
◇육 상
▲여 400m계주=46초27
▲남1만m=朴元根 29분38초71
▲여100m=李明姬11초99
▲여 200m=李明姬24초49
◇사 이 클
▲1천m스프린트=金永洙11초51
◇레 슬 링
▲48㎏급=孫甲道
▲68㎏급=[illegible]
▲52㎏급=[illegible]
◇복 싱
▲플라이급=權彩吾
▲헤비급=蘇培元
▲슈퍼헤비급=金鉉乎
◇핸 드 볼
▲남 자
◇배드민턴
▲남 단체
▲여 단체
▲여단식=金練子
▲남 복식=朴住奉·李恩求
◇배 구
▲남 자
▲여 자

84년 LA올림픽향해 뛰자

「無名 全盛시대」 그原因 분석부터

축구등 不振종목 육성 서둘러야

日·中共잡게 훈련科學化도 시급



◇金메달의 점프。 복싱 웰터급 결승전서 북한선수를 2회 RSC로 물리치고 우승한 [illegible]이 기뻐 뛰고 있다。 【신문공동취재단聯=聯】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단은 6일하오 자랑스런 모습으로 개선한다.

한국스포츠는 48년 런던올림픽서 태극기를 올린이래수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했지만 이번 뉴델리 아시안게임만큼 국민들의 눈과귀를 한곳으로 모으게한 대회도 드물었다.

신문과 방송이 아시안게임현장에 초점을 맞추어놓고집중보도 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감동을 일으켰다.

한국이 뉴델리에서얻은 가장 자랑스런 수확은 각종목의 경기력이 고루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확인한것이다. 승마를 제외한 20개 종목에출전하여 축구와 요트를 제외한 모든 종목서 메달을 고루 획득, 아시아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맞아 치르는 주최국 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각종목의 균형적 성장 이야말로 금메달 몇개를 더따고 덜따는문제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金粲坤(마라톤) 朴吉龍(사이클)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이 뉴델리에서 각광을 받아 「無名전성시대」라는 새로운 말을탄생시켰는데, 무명선수들이 유명선수들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린데 대해서도 연구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대표선수 강화훈련이나 선수선발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가 재점토할 때다.

88년 올림픽까지 두차례의 고비(84년 LA올림픽 86년 아시안게임)를 넘겨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부진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며 축구를 비롯한 몇몇 부진종목 집행부의 대폭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의 스포츠 잠재력은 북한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음이 입증됐다. 메달획득 분포상황만 살펴볼때에도 한국의우세가 확연하다. 남북 스포츠대결에집착할때는 이미 지났고 우리는 中共과 日本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것이다.

빛나는 결실은 짐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아시안게임서 28개이상의 금메달을 요구할 것이다. 40개 50개의 금메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지도층의 분발과 과학적인 훈련이 따라야 하겠다.

체육회와 복싱연맹매스컴이 2~3개정도의금메달을예상하며 최악체라고 비판했던 한국복싱이 7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우리모두의 뒤통수를 강타한 사건이다. 승리의 도취감을 떨쳐버리고 86년아시안게임을 향해 뛸때다.

◇한국종목별 메달수

종 목	금	은	동
육 상	3	3	4
수 영	3	4	5
궁 도	2	2	1
사 격	3	3	4
사 이 클	2	3	1
역 도	2	0	1
테 니 스	4	3	0
배 드 민 턴	1	1	4
탁 구	0	2	4
복 싱	7	2	3
농 구	1	1	0
배 구	0	0	2
골 프	0	1	0
하 키	0	1	0
레 슬 링	0	2	3
체 조	0	0	2
조 정	0	0	2
핸 드 볼	0	0	1
계	28	28	37

◇메달최종집계

	金	銀	銅
①중공	61	51	41
②일본	57	52	44
③한국	28	28	37
④북한	17	19	20
⑤인도	13	19	25
⑥印尼	4	4	7
⑦이란	4	4	4
⑧파키스탄	3	3	5
⑨몽고	3	3	1
⑩필리핀	2	3	9
⑪이라크	2	3	4
⑫태국	1	5	4
⑬쿠웨이트	1	3	3
⑭시리아	1	1	1
⑮말聯	1	0	3
⑯싱가포르	1	0	2
⑰레바논	0	1	0
⑰아프가니	0	1	0
⑲홍콩	0	0	1
⑲바레인	0	0	1
⑲베트남	0	0	1
⑲카타르	0	0	1
⑲사우디	0	0	1

◇역대 대회 성적

대 회	순 위	金	銀	銅
1회 1951년 뉴델리	①일본	24	20	14
	②인도	15	18	19
	③이란	7	5	2
	※한국 불참			
2회 1954년 마닐라	①일본	38	36	24
	②필리핀	14	14	17
	③한국	8	6	5
3회 1958년 동경	①일본	67	41	30
	②필리핀	8	19	21
	③한국	8	7	12
4회 1962년 자카르타	①일본	73	56	23
	②인도	10	13	10
	③인도네시아	9	12	27
	⑥한국	4	9	10
5회 1966년 방콕	①일본	78	53	33
	②한국	12	18	21
	③태국	12	14	11
6회 1970년 방콕	①일본	74	47	23
	②한국	18	13	23
	③태국	9	17	13
7회 1974년 테헤란	①일본	75	49	51
	②이란	36	29	17
	③중공	33	45	28
	④한국	16	26	15
	⑤북한	15	14	17
8회 1979년 방콕	①일본	75	59	49
	②중공	51	54	48
	③한국	18	20	31
	④북한	15	13	15
	⑤태국	11	12	19
9회 1982년 뉴델리	①중공	61	51	41
	②일본	57	52	44
	③한국	28	28	37
	④북한	17	19	20
	⑤인도	13	19	25

고메즈、타이틀防禦

WBC S밴텀급 핀토르에 14회KO勝

美헌즈 S웰터급 새王者로

【뉴올리언즈=聯】프로복싱 WBC슈퍼밴텀급 챔피언 윌프레도·고메즈(푸에르토리코)는 4일 이곳 슈퍼돔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서 도전자 루페·핀토르(멕시코)에게 14회 2분44초만에 KO승했다.

WBC밴텀급 챔피언인 핀토르는 이번패배와 관계없이 밴텀급왕좌를 지키고있다.

고메즈는 이날 13회에 핀토르를 집중강타했으며 14회 종반 오른쪽 짧은 펀치에 이은 라이트훅이 핀토르의 왼쪽관자놀이를 강타, 캔버스에 눕혔다.

고메즈는 가까스로 일어난 핀토르를다시맹공, 좌우강펀치를날려 두번째 다운을얻었으며 주심 아서·메칸테씨는 카운트없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핀토르는 경기가 끝난뒤에도 수분간 캔버스에 누워있다가 링을걸어내려왔다.

이어 벌어진 WBC슈퍼·웰터급 타이틀전서는 도전자 토머스·헌즈(미국)가 윌프레드·베니테즈(푸에르토리코)를 판정으로물리쳐 새챔피언에 올랐다.

헌즈는 5회들어 다운을뺏었다.

한국、蘇에憤敗

세계女子핸드볼

【데브레첸(헝가리)=聯】한국은 4일 새벽1시(한국시간)헝가리 제3의 도시인 데브레첸에서 벌어진 제8회 세계여자 핸드볼선수권대회 예선리그B조 2차전에서 세계최강 소련에 21-23으로분패, 1무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불가리아와의 예선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蘇聯이 루마니아를 꺾을경우 골득실차로 6강의 본선진출팀을 가리게되는데 2패인 불가리아에 패하면 예선에서탈락하게된다.

◇소 련23(13-10 / 11-10)21한 국 (2승) (1무1패)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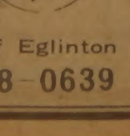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윈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쉘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림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즈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Part Time 남자 헬퍼(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동쪽 끝.
전화: 282-5632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여자 룸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 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81년형 GMC밴트럭 17,000Km
다크 블루, 사정상 매매코자 함.
전화 : 365-0904 Mr.안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컴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2 Bed Rm. 아파트 렌트
Royal York & Queen's way 근방. 월: $370
전화 : 259-1724, 251-703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 × 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홍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켄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홍소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축
성 탄

커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럭키 DRAPERY에서는
다양한 커텐 품목을 구비하고
세련된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일차 내왕해 보세요.
성의를 다해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비옵니다.

대표 최원보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LUCKY DRAPERY

☎ 625-0698